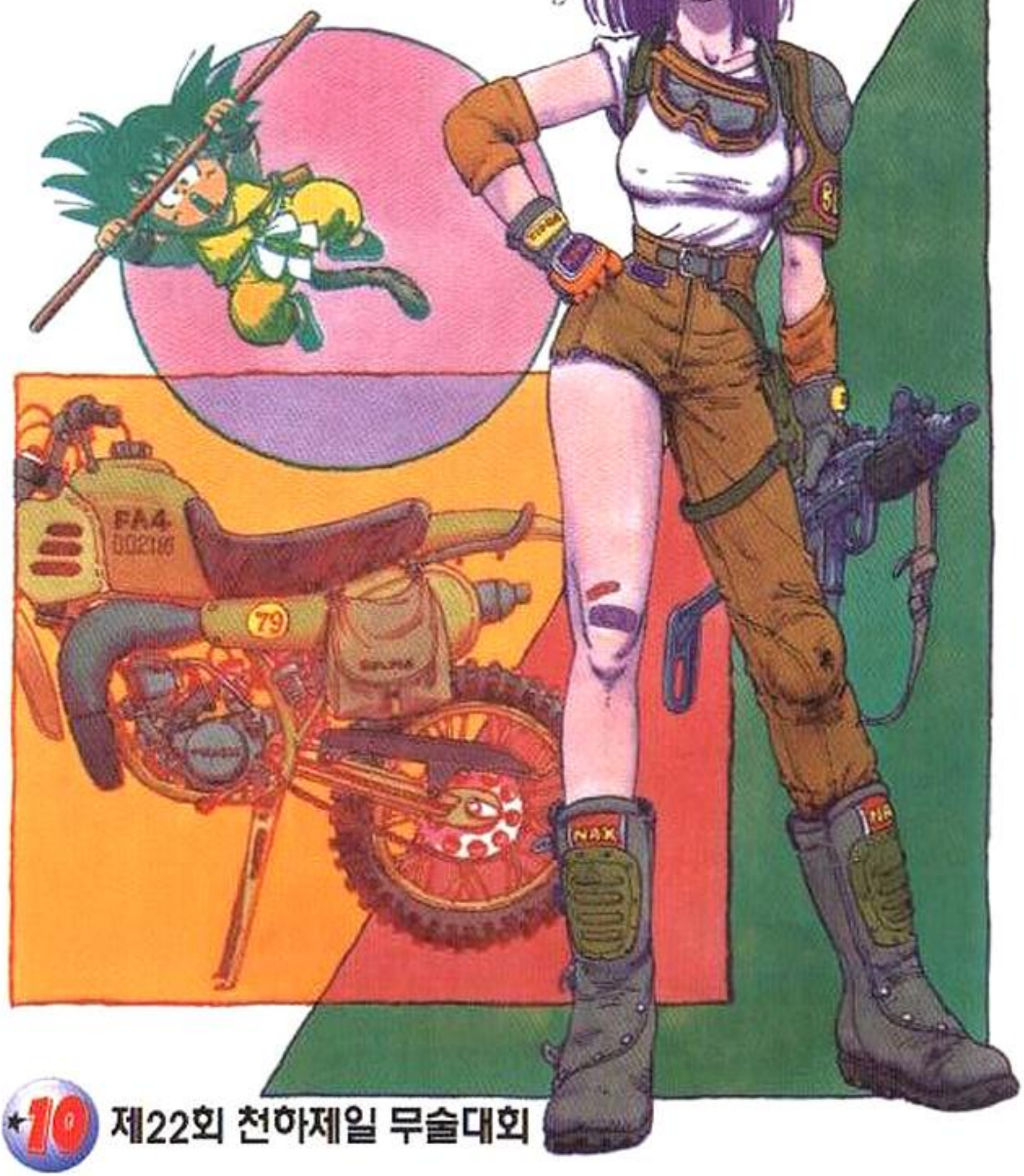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10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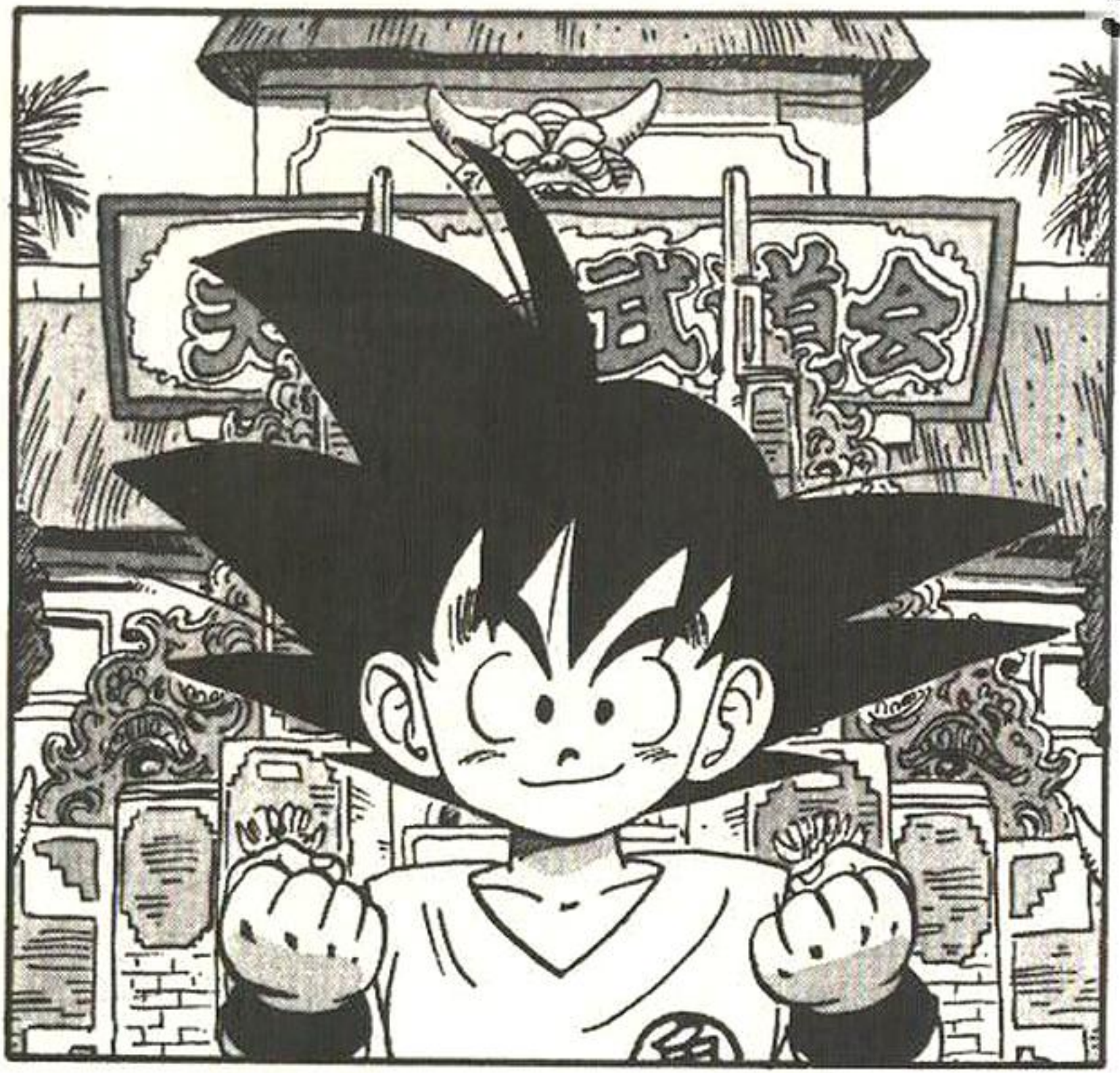
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근시라는 건 거의 좋은 점이 없습니다. 풀장이나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거나 하면, 전혀 수영복 입은 쭉쭉빵빵 아가씨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오! 하는 생각에 서둘러 안경을 끼면 아줌마가 눈앞에 나타나서, 다시 황급히 안경을 벗어 버리는 경우 등이 자주 있습니다. 이전에 간 온천이 혼욕이라서,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아 눈물을 머금은 적도 있습니다. 근시는 정말 싫어-! 여러분도 눈을 소중하게 보호하세요!

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10편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부르마와 손오공은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대 모험 끝에 겨우겨우 모든 구슬을 모았지만, 악당 피라후에게 뺏겨버린다. 그래서 오공과 친구들은 여자 팬티라고 하는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모험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알게 된 우파의 아버지가 레드리본 군에게 살해당하자, 손오공은 레드리본 군을 박살내고, 6개의 드래곤 볼을 모은다. 남은 1개는 피라후 일당에게. 구슬을 찾으러 출발!!

DRAGON BALL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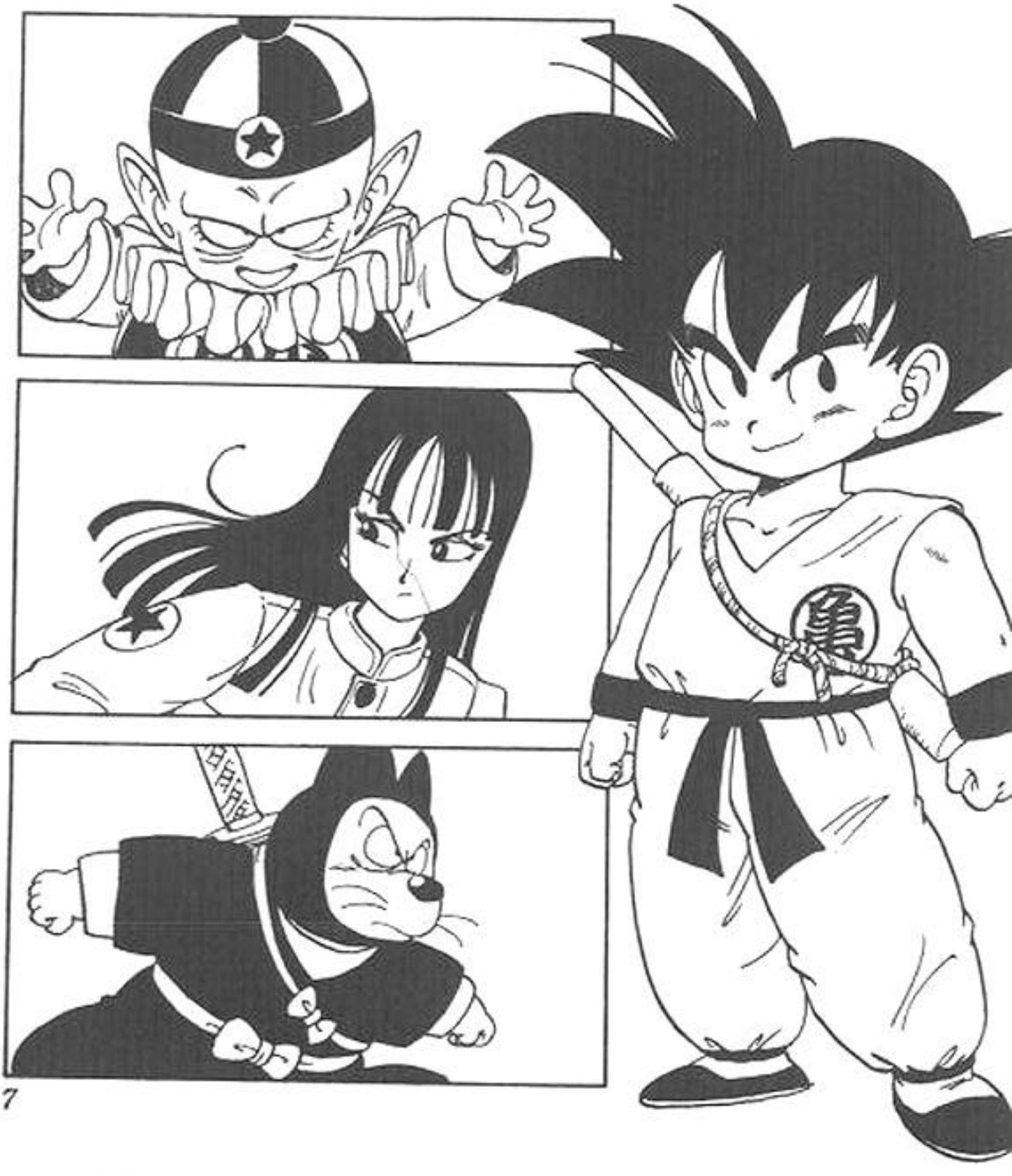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제109화 피라후 일당의 재도전 ····· 7
제110화 피라후의 대작전 ····· 22
제111화 용신 재등장!! ····· 37
제112화 달려라! 손오공 ····· 52
제113화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 67
제114화 예선 서바이벌 ····· 82
제115화 예선 서바이벌 2탄 ····· 97
제116화 조작된 대전표 ····· 112
제117화 야무치의 에네르기파 ····· 126
제118화 야무치의 패배! ····· 140
제119화 보름달의 원한 ····· 154
제120화 뜻밖의 도동파 ····· 168
표지 페이지 대특집 IX ····· 182

DRAGON BALL

제109화
피라후 일당의 재도전



간 김에
드래곤 볼도
찾아오고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차를
찾아볼게!

근데
좀 이상한걸?
그 차에 구슬이
있을 텐데,
레이더에는
나타나지 않네….

걱정할 것
없어. 이 녀석이
달리고 있는
곳은 자동차가
별로 많은 곳이
아니니까.

잠깐!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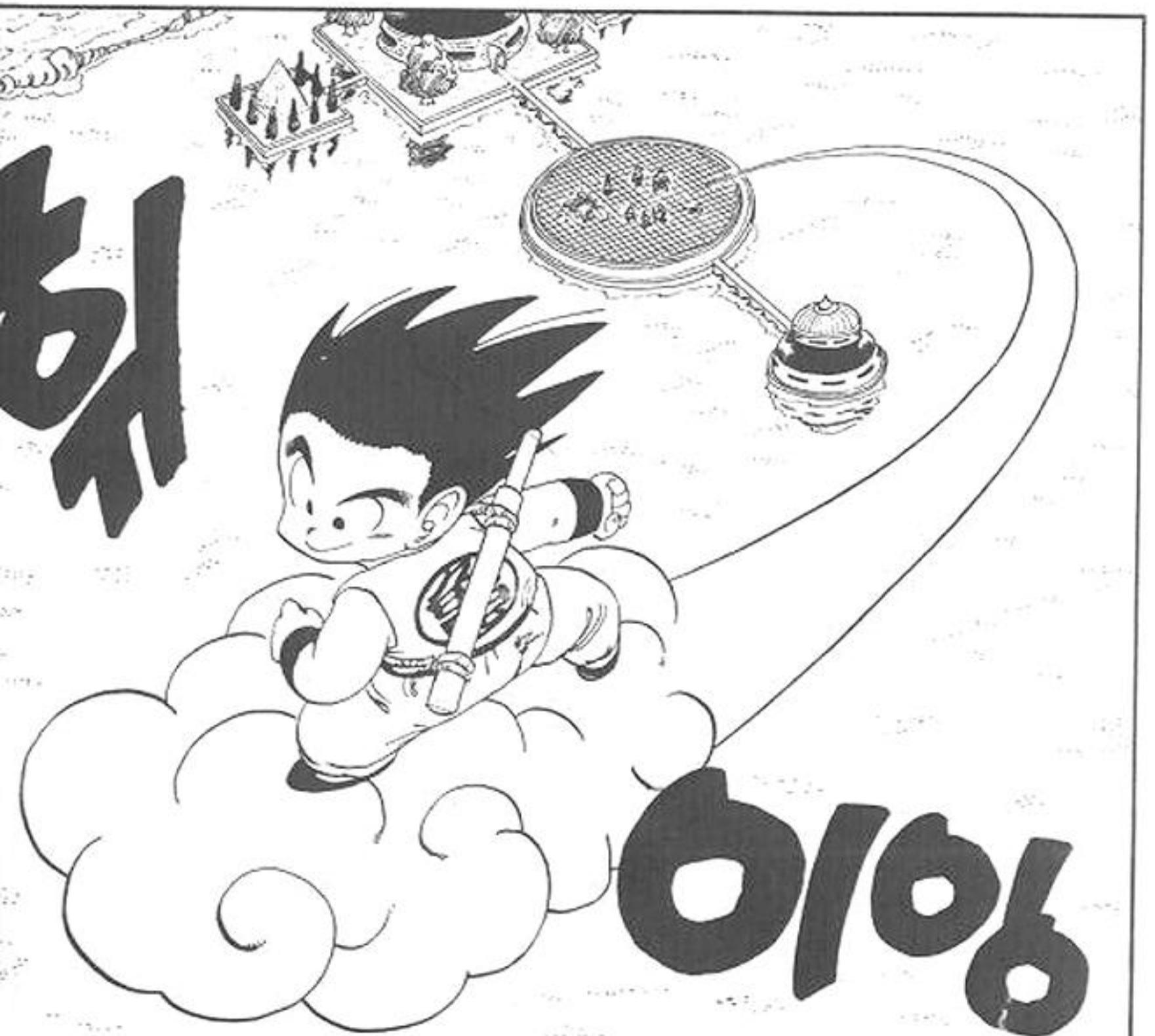
근두운,
준비!

저쪽
방향이었지?

그래!


가자,
근두운!
휙


다행이다!
이제야
일곱 개
모두 찾게
되는구나.
응!
내가
그 드래곤 볼
가지고 금방
돌아올게!


제
0106



쌔앙
이얏호－！
부우우우웅 ....
히히힛…！ 그 녀석 꼬리만 잡아버리면 드래곤 볼이 전부 우리 손에 들어온다…！
예！역시 피라후 님이셔！
…이런 작전이야. 알겠냐？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온 세상이 모두
이 피라후 님
맘대로…!

이번에는
용신에게
꼭 소원을
말해야지.

시, 시끄러!
그건 아직
비밀이라구!

그…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응?

왕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앗!

부으으우우읗…..

저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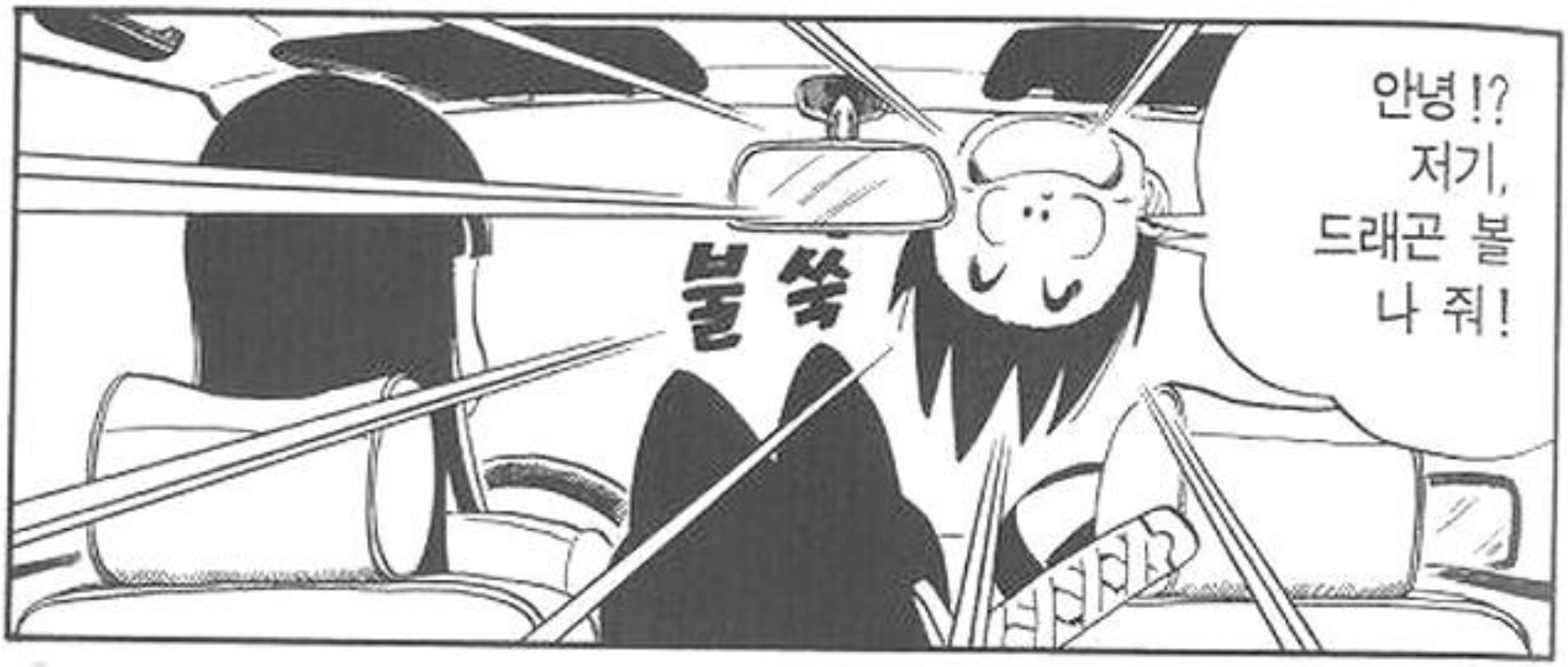
맞아!
저 차야!

휙

쿵

지금 무슨 소리가 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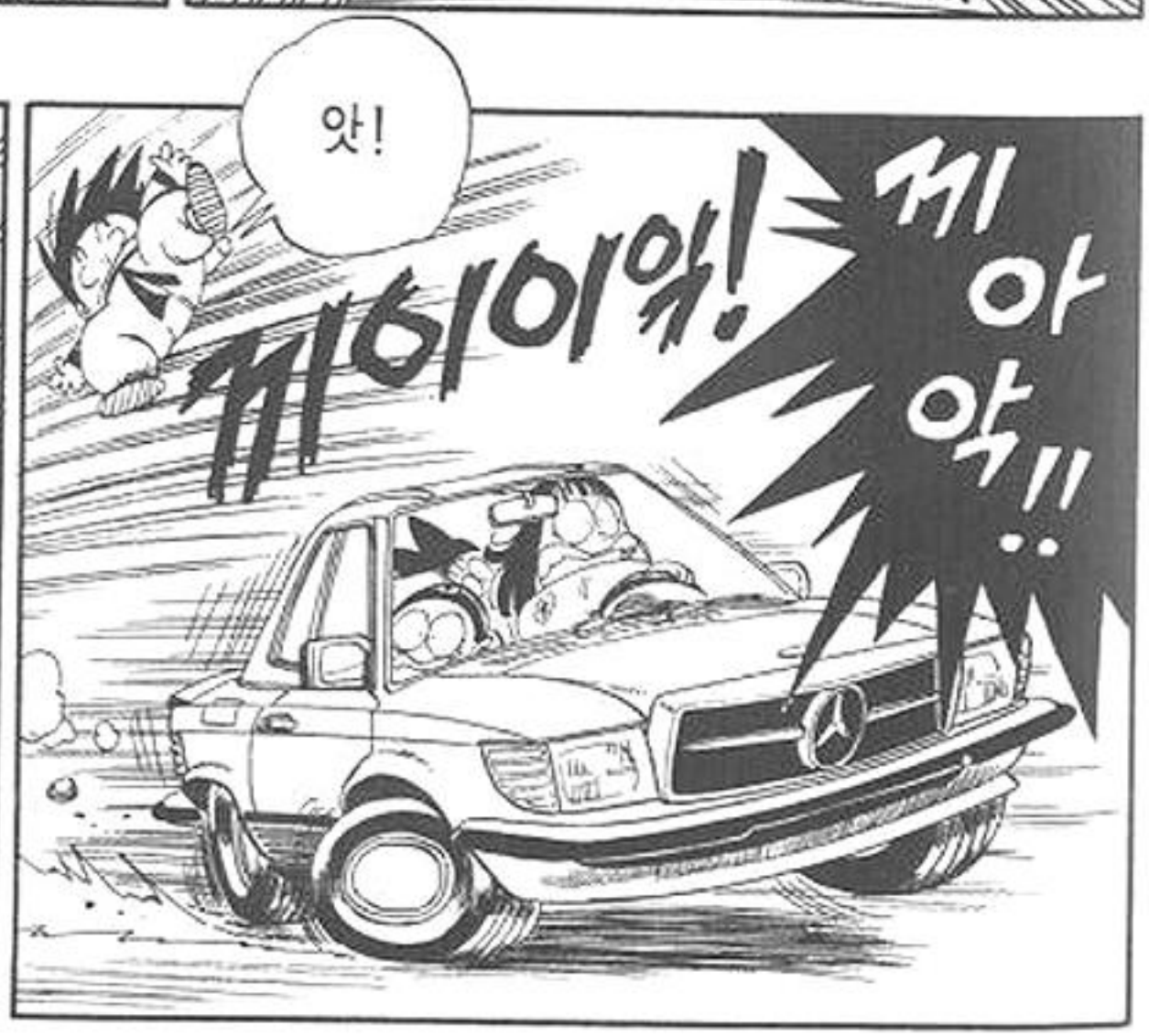
도, 돌이 떨어진 건가?


안녕!? 저기, 드래곤 볼 나 줘!
불쑥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
너희들은 …


어쭈구리?


뿝!


앗!
끼아아앙!
끼아앙!!

레, 레이더에도 절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이 상자에 드래곤 볼을 넣어 두면….

어… 어떻게 여길….

서…, 설마! 그럴 리가….

그… 그 꼬마다….

그래, 생각났다!

앗!

전에 우리를 죽이려던 놈들이야!

으으음…!

제일 귀찮은 놈이 저 꼬마였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저 녀석 혼자 온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야.

당황하지 마!

어, 어쩌죠? 저 녀석의 허를 찌를 작정이었는데, 먼저 나타나다니….

엄마! 빨리 나와!

하지만 어차피 이제 저놈은 우리의 적수가 못돼. 위험할 때 저놈의 약점인 꼬리를 잡아버리면 되는 거걸랑.

흥, 드래곤 볼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구나.

후후후….

크흐흐…! 웃기시는군. 나도 너처럼 드래곤 볼을 모으고 있다!

이제 얌전히 그걸 내게 주셔!

너희들, 또 나쁜 짓 하려는 거지?

그 대신 우리가 이기면 네가 모은 구슬 여섯 개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와 싸워서 네가 이기면 이걸 줄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보다, 어때? 지금 조건대로 약속할 수 있어?

하하핫! 피라후 님은 천재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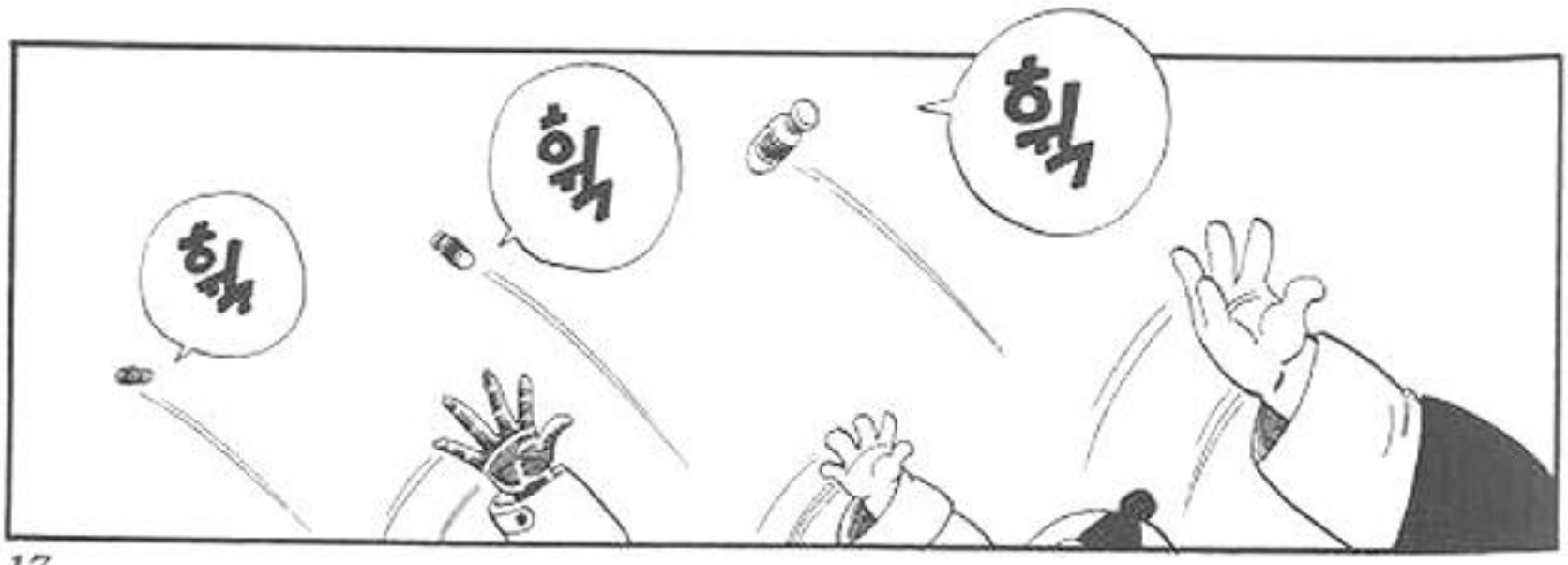
내가 여섯 개 모은 걸 어떻게 알았지?

좋아!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지!


좋아,
덤벼!


약속했다!
거짓말하면
너 지옥간다!
히죽


으하하핫!
간닷!
餃


휙
휙
휙


펑
펑
펑
후다닥
에잇!
탁
휙
척


이게 뭐야?
……?
짜ㅡ…안

으하하하! 어떠냐?
무서우면 어서
항복하시지!
이 피라후머신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구!

오호….
자신감이
대단하군…!

……

그럼
한 판
붙어볼까?

좋아!

솔직히 이 머신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구!

너 말야,
천재인 내가 설계한
피라후머신을
우습게 봤다간
개망신 당할걸!

그렇게
죽고 싶냐?

예!?

야, 마이!
저놈에게
피라후머신의
무서움을 맛보게
해줘라!

안 덤비면
내가 먼저
간다!

저…
저말입니까?

우선
피라후 님이
시범을….

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너, 이 피라후 님을
못믿는 거니!?

으악-!

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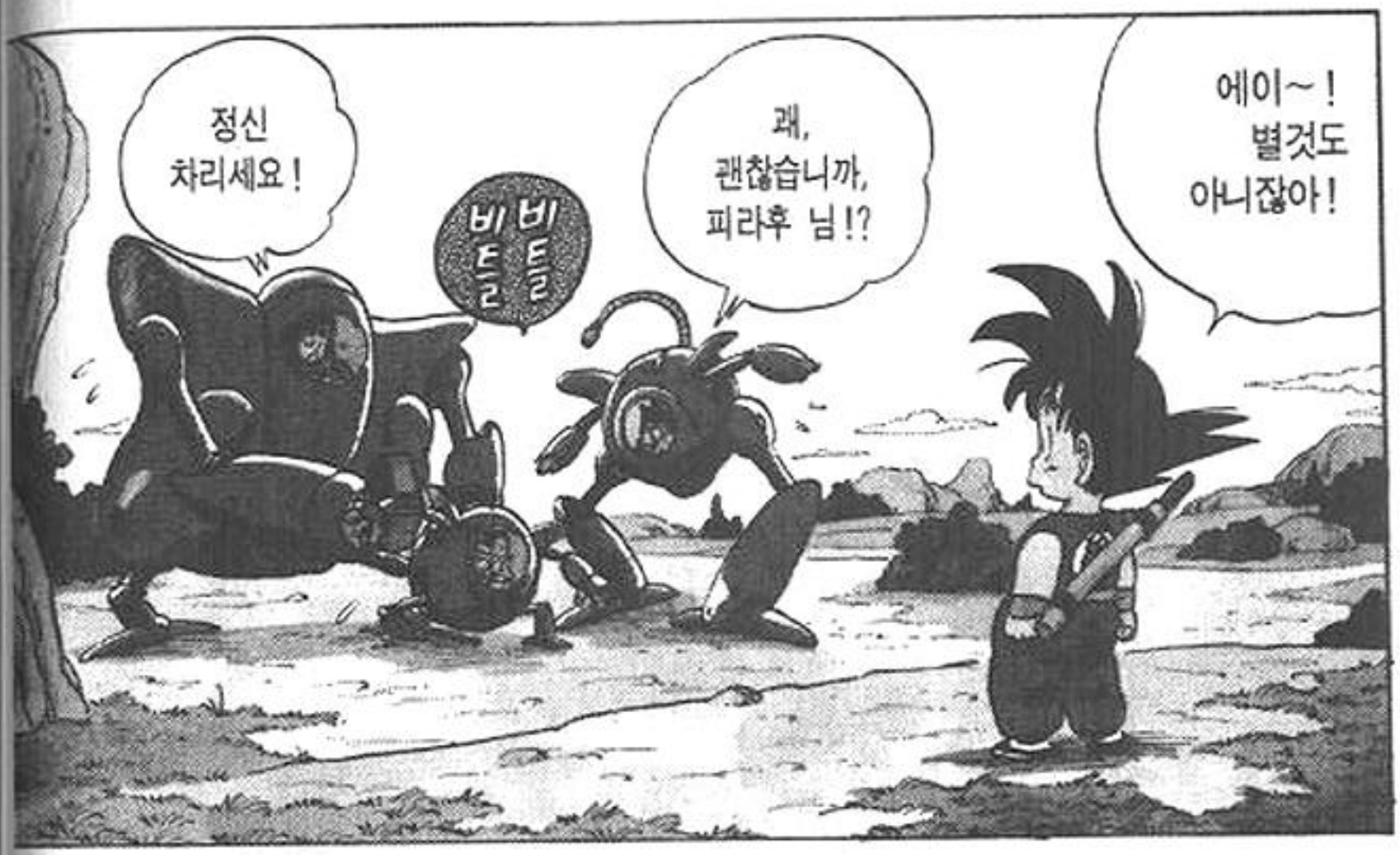
저…
저게
사람이야?

괜찮습
니까!?

피,
피라후 님!

쿠당

다음은, 제110화 피라후의 대작전


정신
차리세요!
비
트
비
트
괘,
괜찮습니까,
피라후 님!?
에이~!
별것도
아니잖아!


꼬리잡기
작전이닷!
좋아,
가자!


옛!


제, 제길~!
이렇게까지
셀 줄이야…!
좋아~!
그렇다면 역시
저놈의 약점인
꼬리를 잡는
작전을 펴는
수밖에 없다!


샤샤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그럼
작전개시다!
하나…, 둘…,
셋…!


뭐야?


왜,
왜 그래?!
슈!!
꼬리가
안 보여요!
저놈, 꼬리를
바지 안에 넣어
두었나봐요!
?


잠깐만요,
피라후 님!
앗!

뭐?
타임?

자, 잠깐
타임!

조, 좋아!
작전
변경이다!

뭐,
뭐야?

소곤
소곤

소곤

쑥덕
쑥덕

그래,
그게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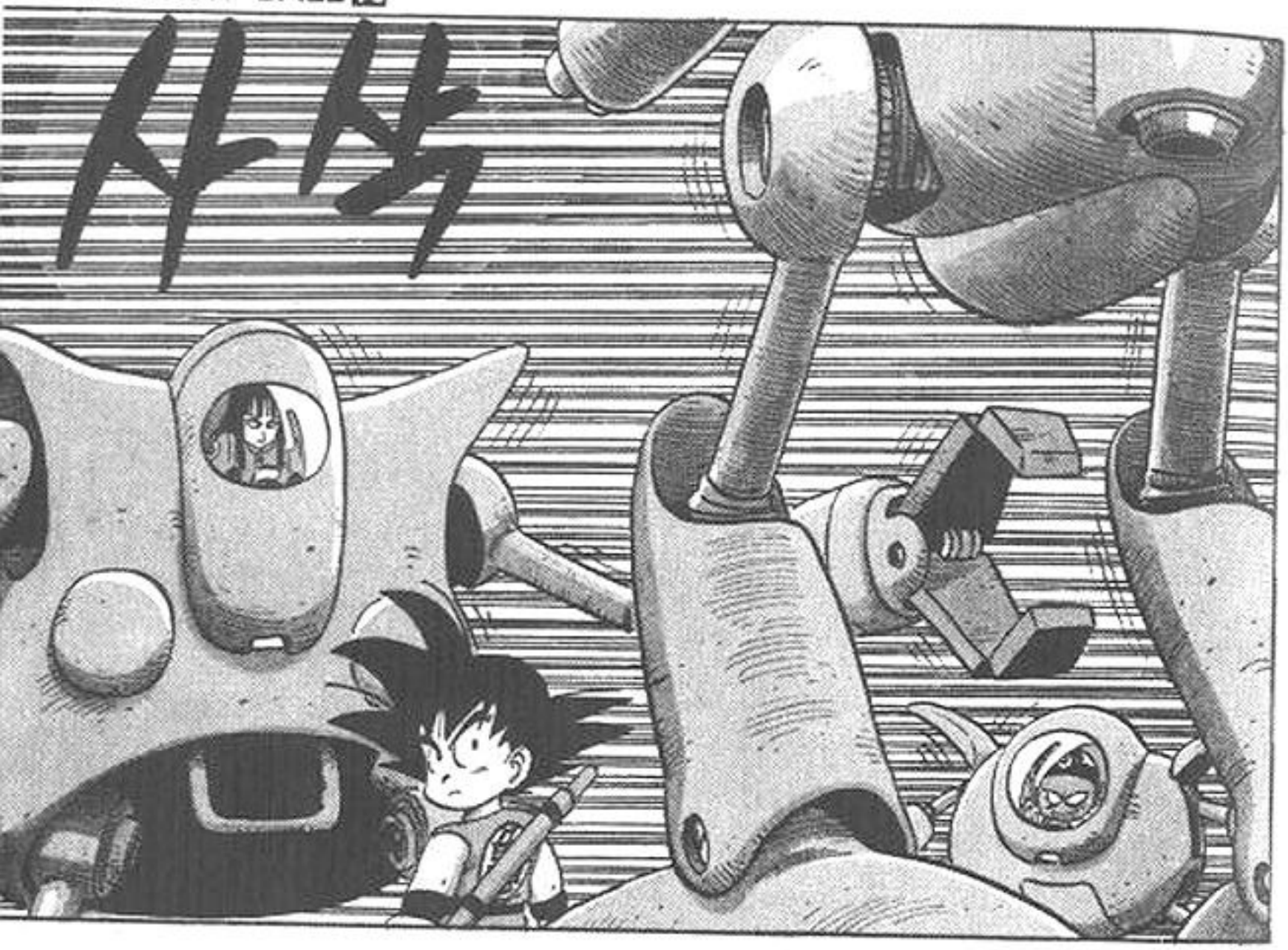
어떡하나?

이젠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
가지야!

으하하!
기다리기
지루했지?

와랏!

그건
붙어봐야
알 수 있지!


카카




두근
두근
두근


간다,
꼬마야!

엥!?

앗!!

지금이닷!

덥썩

앗!


얌마, 이거 못놔? 놔!
으아앗! 뜨거!
화—륵
쏘쏘
쫑았어!!
옷이 타서 엉덩이가 나왔다!

쓰읏

척

좋았어!
꼬리를 잡아랏!

흥!
이 정도쯤이야
힘으로 풀어
버리겠어!

아니!?

끼끼끼…

…!!

어서 꼬리를 잡아요! 왜 꼬리를 안 잡는 겁니까!?

뭐 해요, 피라후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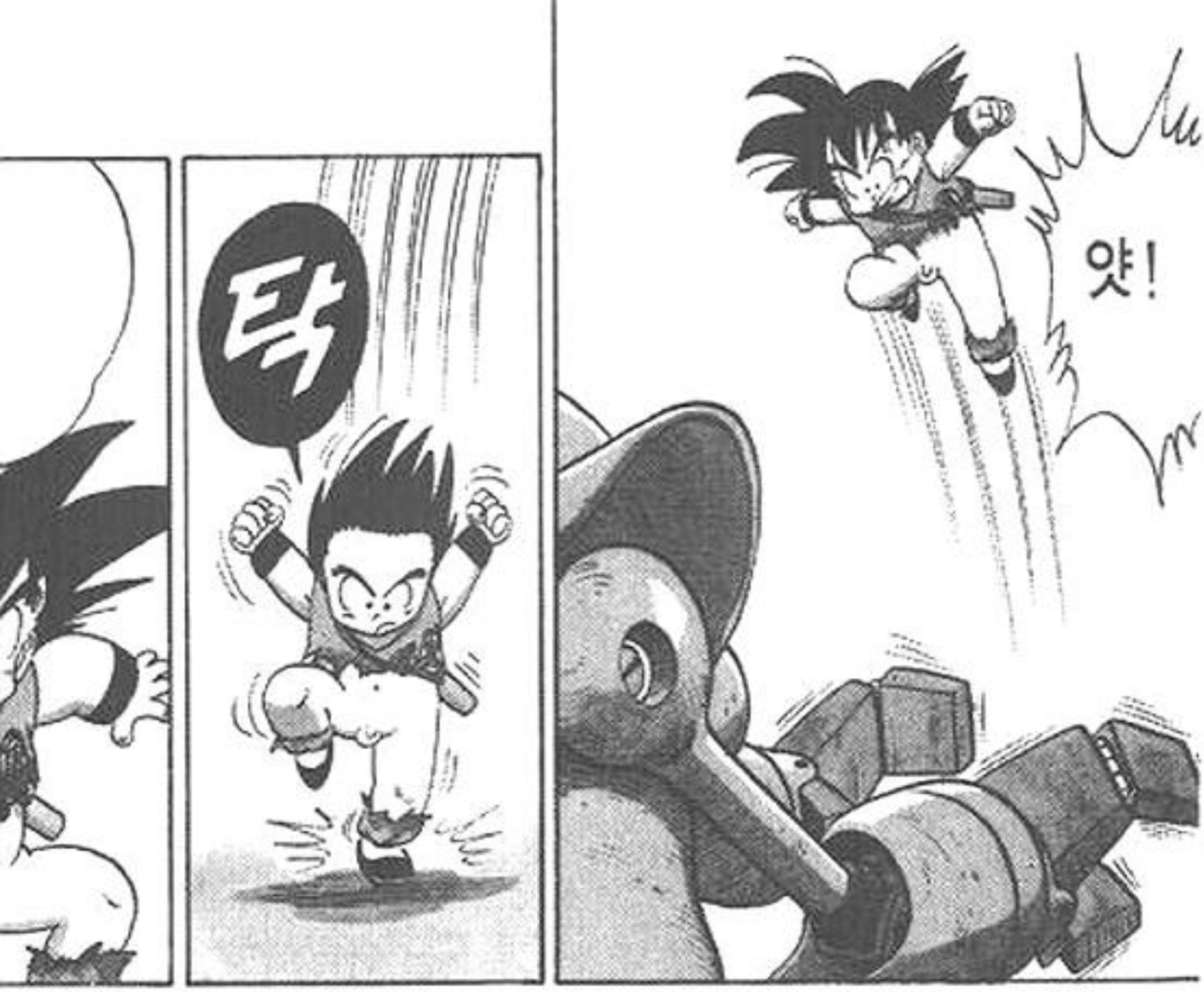
피, 피라후 님! 어서 꼬리를…! 이놈 힘이 굉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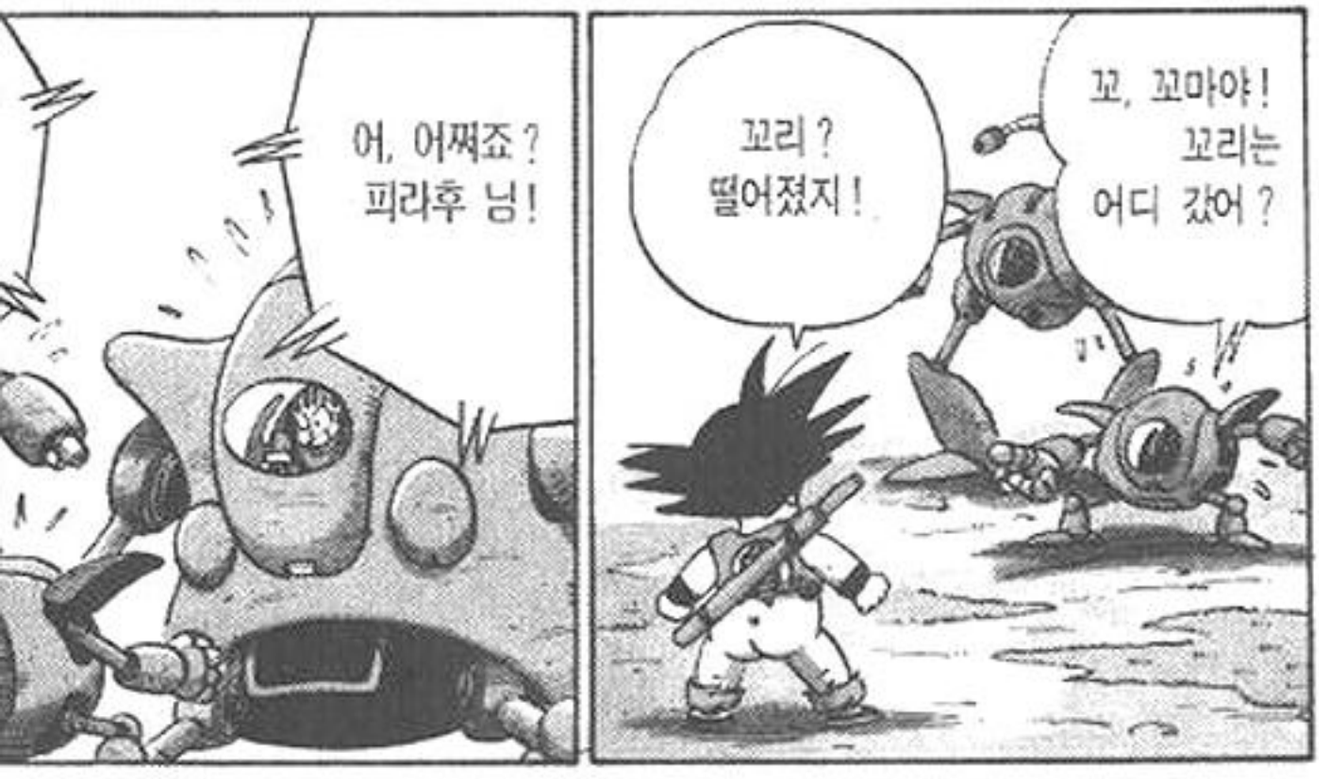
이이잇…!!

끼이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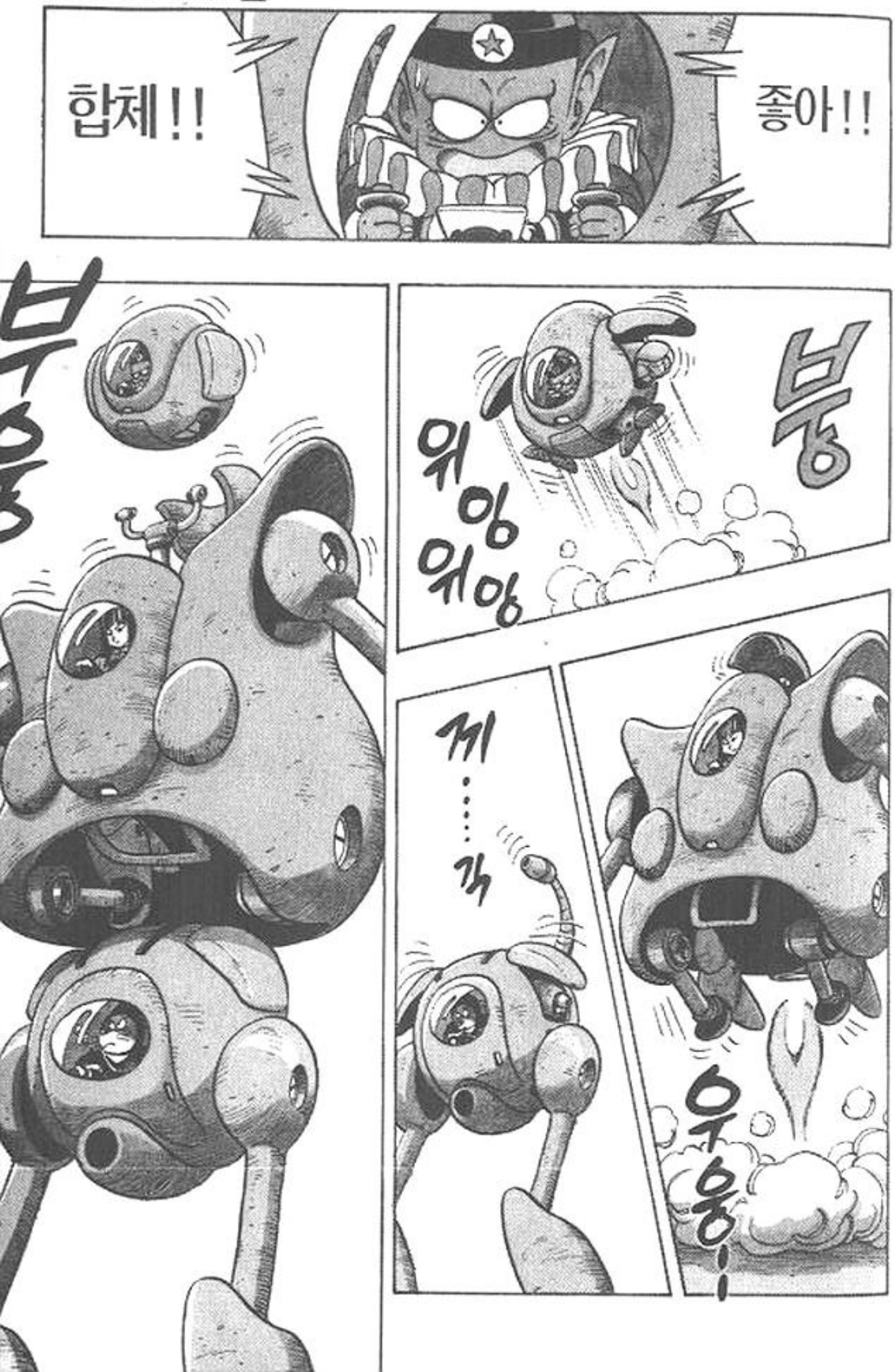
으악!?

꼬… 꼬… 꼬리가…, 없어!


얏!
탁


어, 어쩌죠?
피라후 님!
꼬리?
떨어졌지!
꼬, 꼬마야!
꼬리는
어디 갔어?


좋아-!
이번엔
내 공격을
받아보시지!!


좋아!!
합체!!
붕
워앙워앙
끼……각
우웅!!
부웅

철컥

끼릭

!?

으하하하!
어떠냐!
놀랐지?
우리 정말
멋지지?

짜-안

워라고
중얼대냐?

엇!?

에—.

네—,
르—.

기—.

팟!!

으!!

퍼엉

지금 이건
아주 가벼운
맛보기야!

어때?!

뭐…
뭐 저런 게
다 있냐….

……

2번기는
버리고
〈타조〉 타입으로
변신한다!

좋아!

피라후 님,
2번기는
완전 고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웨어..잉

슈우-응

타타

이번엔 또 뭐야?

?

자아—!

삭

철컥

36계 줄행랑!!

앗!!

미사일! 미사일을 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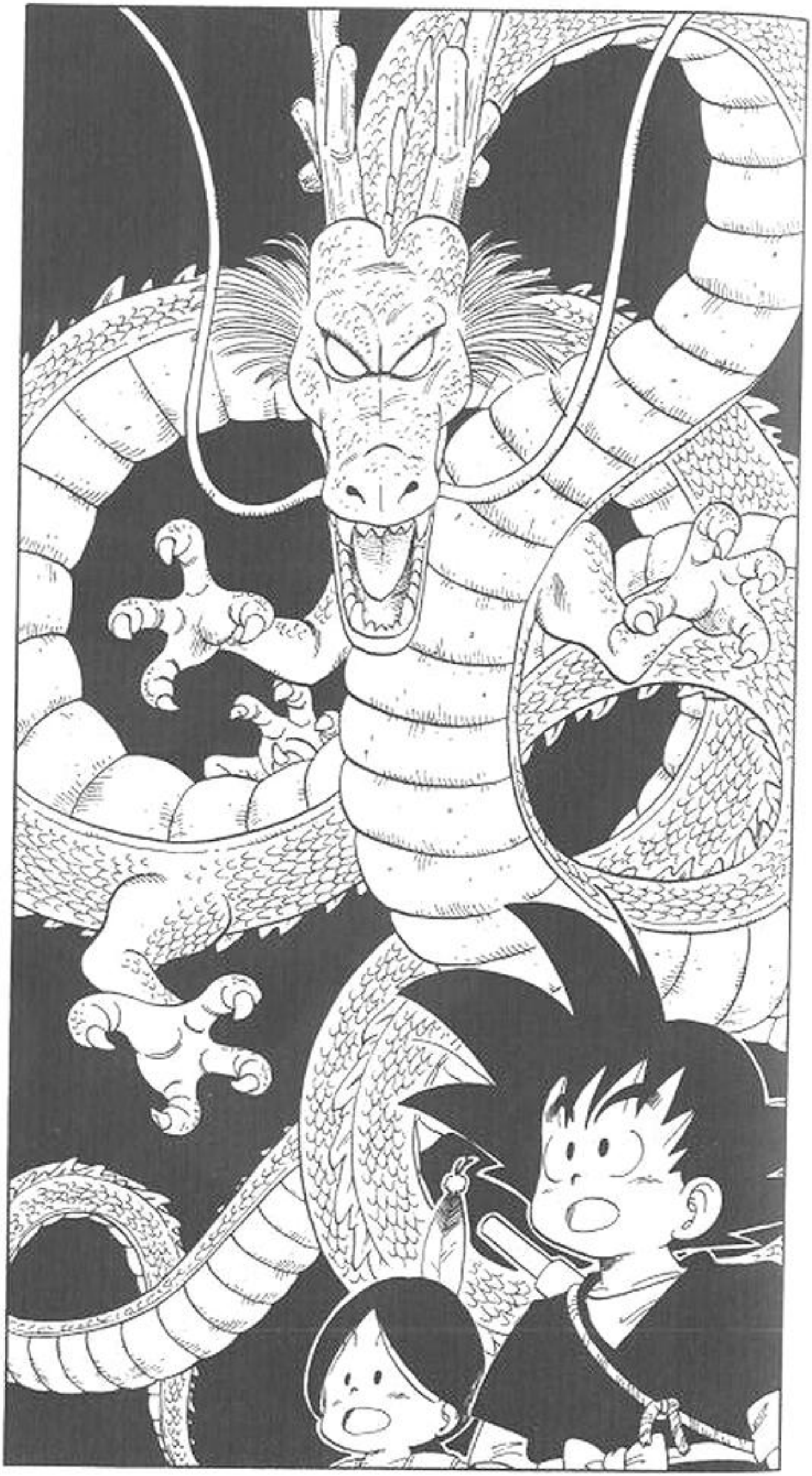
피, 피라후 님! 저놈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와요!

어딜 도망쳐!

타타


푸슝
앗!
덥썩
휙!!
잉!?
이겼다! 드래곤 볼 줘!
예… 예이…!
쾅쾅
헤헤!
그리고 또 옷도 ….
땡큐! 옷도 꼭 맞네.
머…, 멋지십니다….

제111화 영신 재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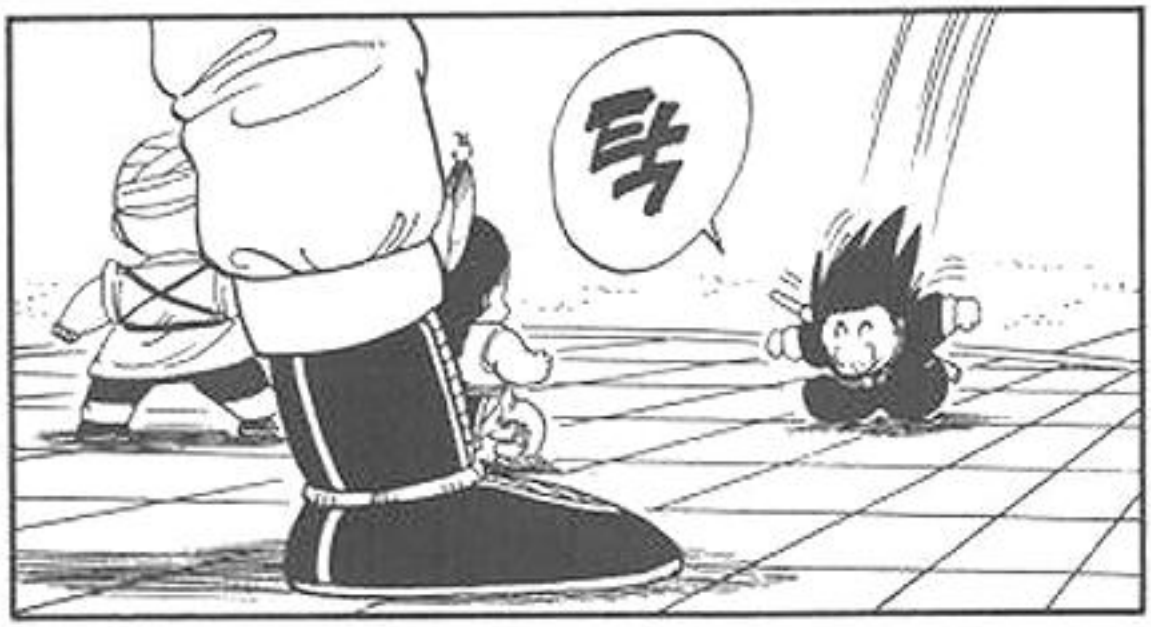
피라후 일당을 혼내준 오공은
드디어 드래곤 볼을
모두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용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찾았다,
찾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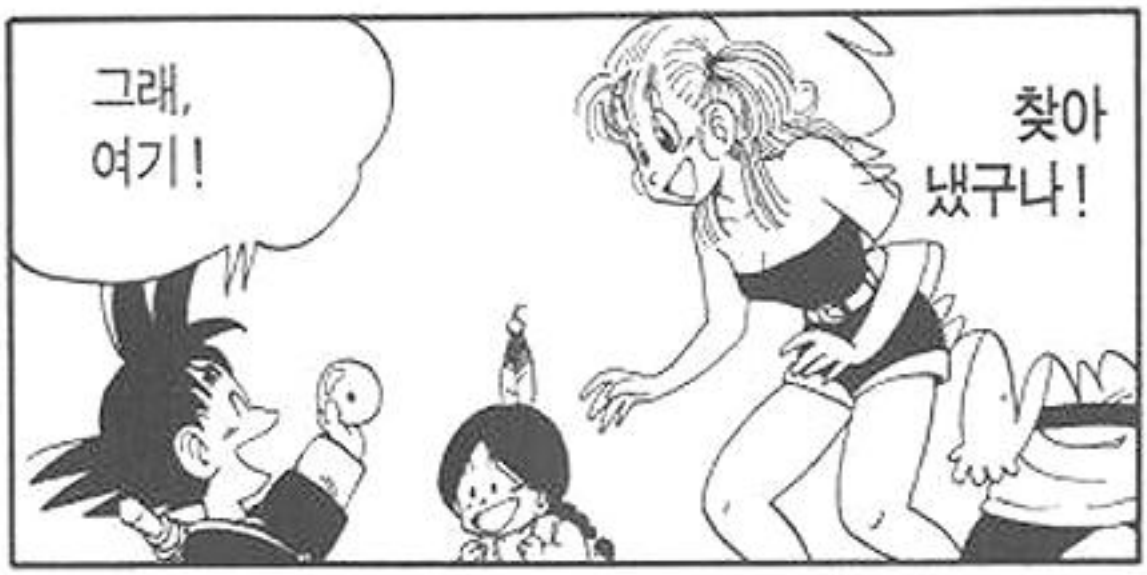
휘잉

제01——06




탁


휘
익


그래,
여기!
찾아
냈구나!


그래
!!
우파!
이제 일곱 개
전부 모았으니
카린으로
가자!


헤헤~!
어라?
근데 옷이
바뀌었어!?




근두운!
빨리 단숨에
날아가자!

여러분,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우파 아버지를
살려주고
다시
돌아올게!

날아갈 거니까
꽉 잡고 있어!

알았어!

HHOH

이번 드래곤 볼 모으기는 진짜 힘들었어.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아~! 나도 그 용신이라는 것 좀 보고 싶었는데.

그놈 성질 한 번 급하군….

저 녀석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무도 무서운 꼬마로군.

저… 저 녀석이…?

으와…!

오공이 세상을 구해…?

예? 그건 무슨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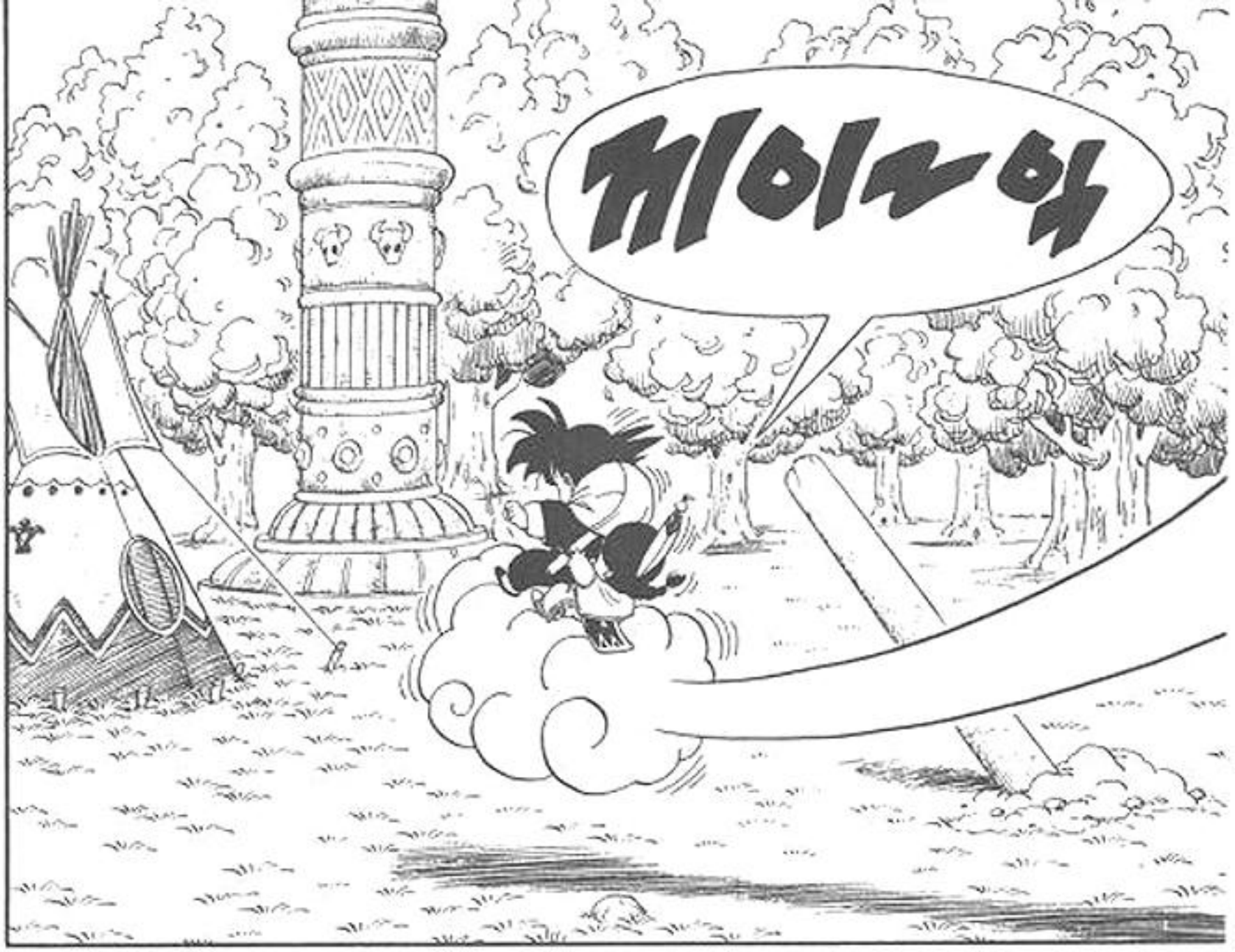
분명히 그리 될 거야. 난 왠지 그런 예감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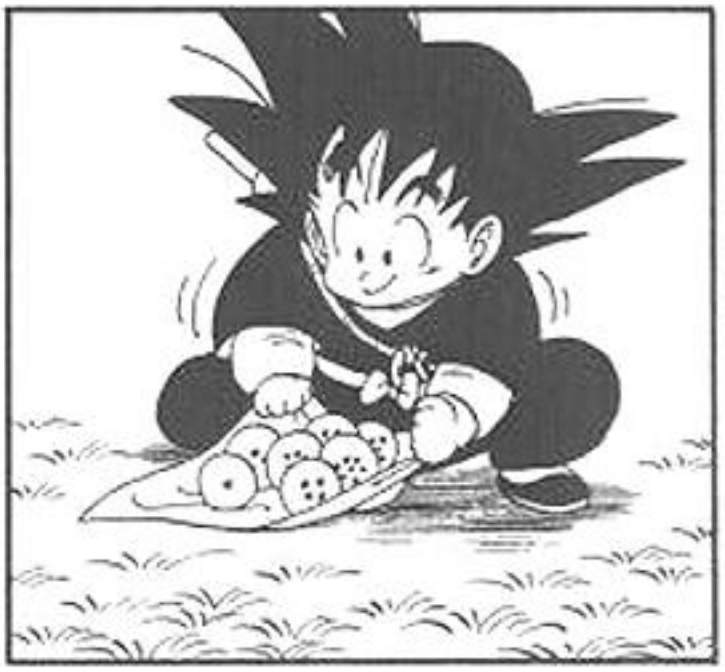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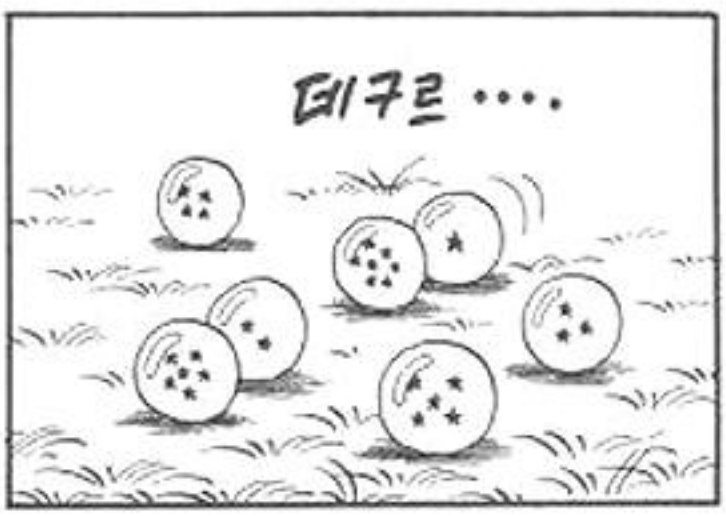
08

다
왔다!!

카린에
도착했어!


까이~앙




데구르 ....


아빠 무덤은 저거야.
그래 ?

그,
그래!

이제
소원을
들어다오!

좋았어-!

어서
나와라!

용신!!


앗!
하늘이
어두워졌어!
!?



파파
으—앗!!
파
번쩍
번쩍
번쩍




……!
우와!
역시
굉장해~!


어떤
소원이든
단 한 가지만
들어준다…!
자, 소원을
말해라!

우파,
소원을
말해!

으…,
음….

소, 소원을
말할게요….

죽은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

물론
식은죽
먹기지.

이룰 수
없는 소원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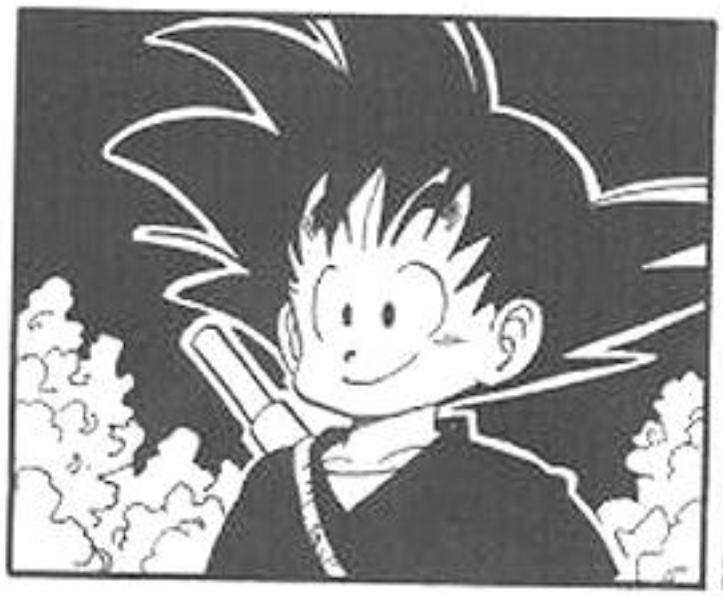

꿈틀
꿈틀
꿈틀
어?
아…!
아빠 무덤이…!
벅오!

제11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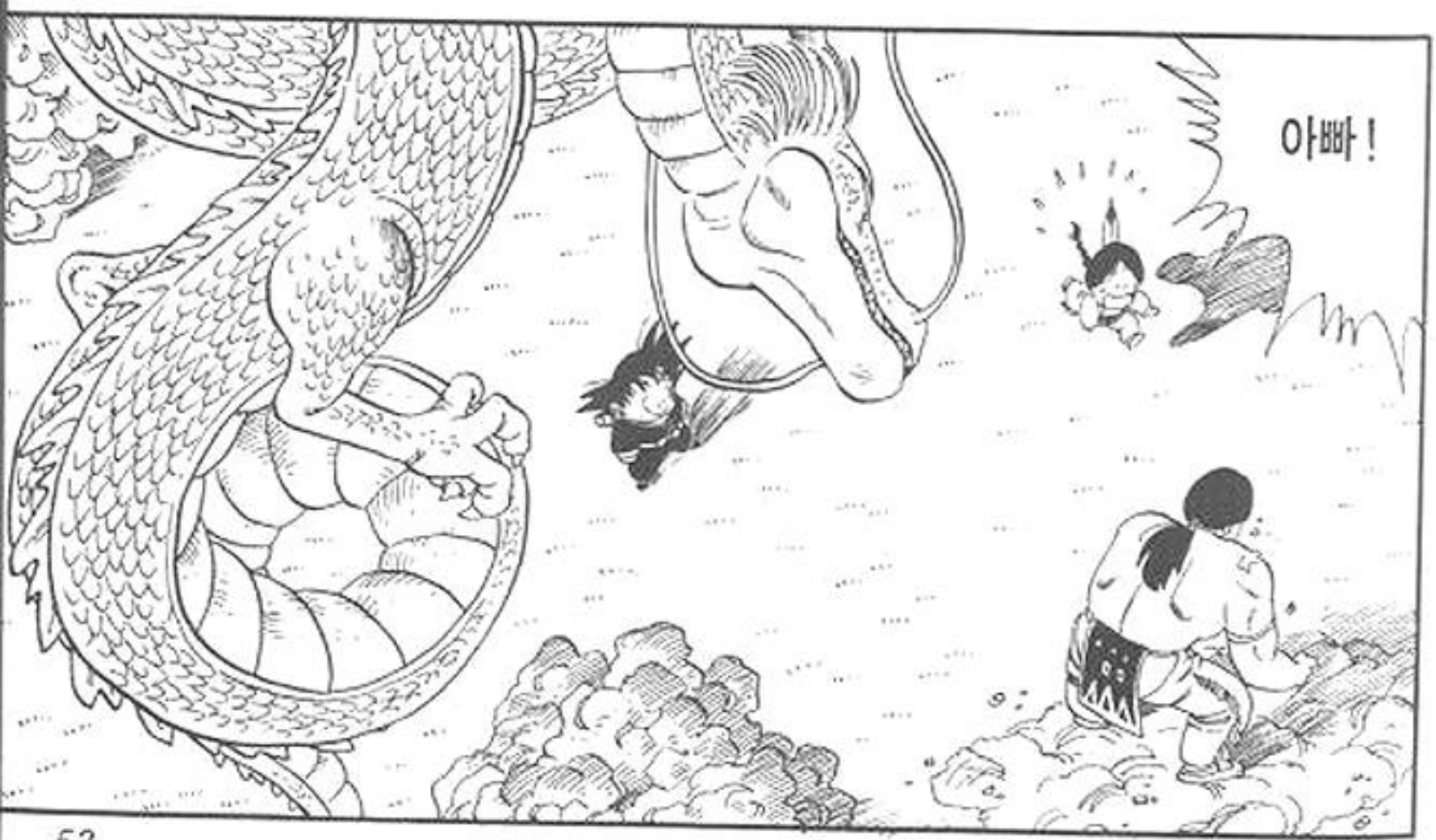
달려라! 손오공




아…!
아빠…!






아빠!

아빠~!

우파…!

…… !?

아빠!
으앙!
너무
잘 됐어!

그렇지
….

나…
나는….

아빠는
죽었지만,
손오공 형이
드래곤 볼을 모아
살려준 거야.

뭐…
뭐야… !?
그랬
구나!

슈우우

소원은 들어줬지?

그럼 난 간다.

저거구나.

사성구는….



쨔
에잇!!
탓
덤썩
핑
앙
피


팟
아앗!


봐!
에?
이…
이게…?


드래곤 볼은
소원을 들어준
뒤에는 다시
어딘가로 날아가
버려서…
할아버지의
사성구만
잡은 거야.
손오공 형!
지금
왜 뛰어
오른 거야?


탁


헤헤~!
살아나서
정말
잘 됐어.
정말
고맙다!
손오공!


용신이 나은 뒤
1년 동안은
드래곤 볼은
단순한 돌멩이나
마찬가지야.
헤헤~!
와~.

우리를 구해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손오공 형은 카린 탑에도 올라갔었어!

아빠를 죽인 사람도 박살을 내버렸고!

손오공은 신의 아들인가봐….

그럼 나 갈게.

에? 벌써 가?

좀더 있어줄래? 축하 잔치를 하고 싶은데….

그치만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서 가야 돼.

또 만나자!

그래!

근두운, 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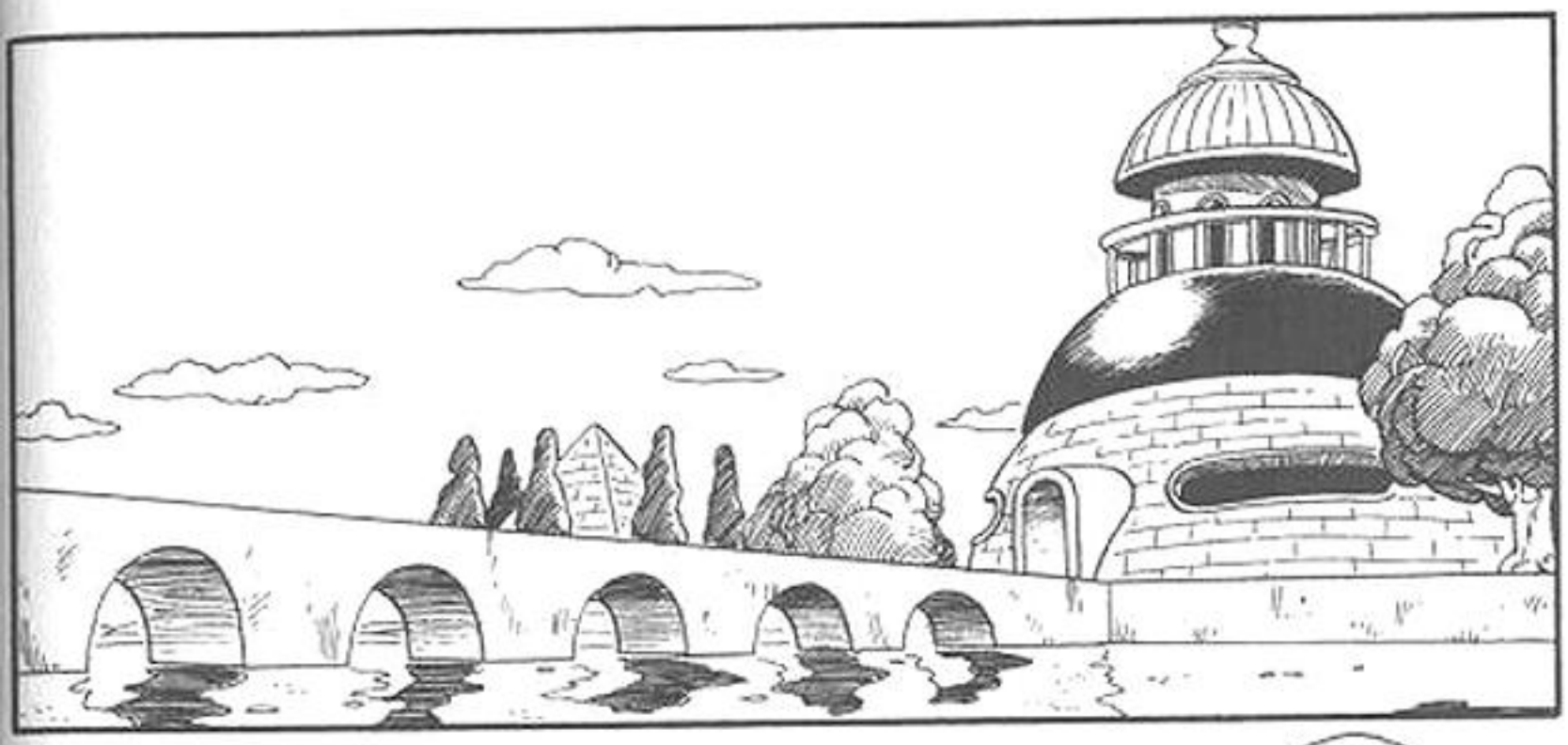
안녕~!
또 놀러 와-!

바이바이!

휘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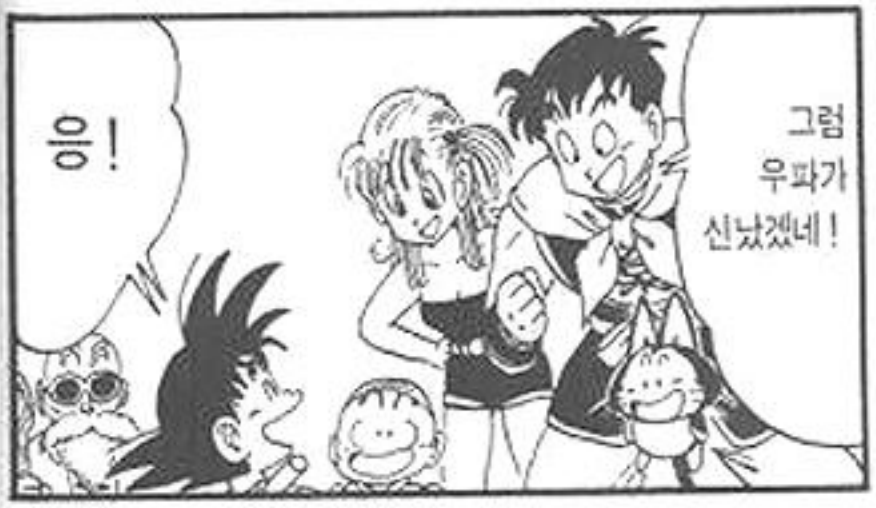
우파야, 이제
손오공처럼
씩씩하게
살 수 있겠니?

예!




어떻게 됐어?
그 꼬마 아버지는
확실히 살아났니?
헬로!


오공이
돌아온다!
오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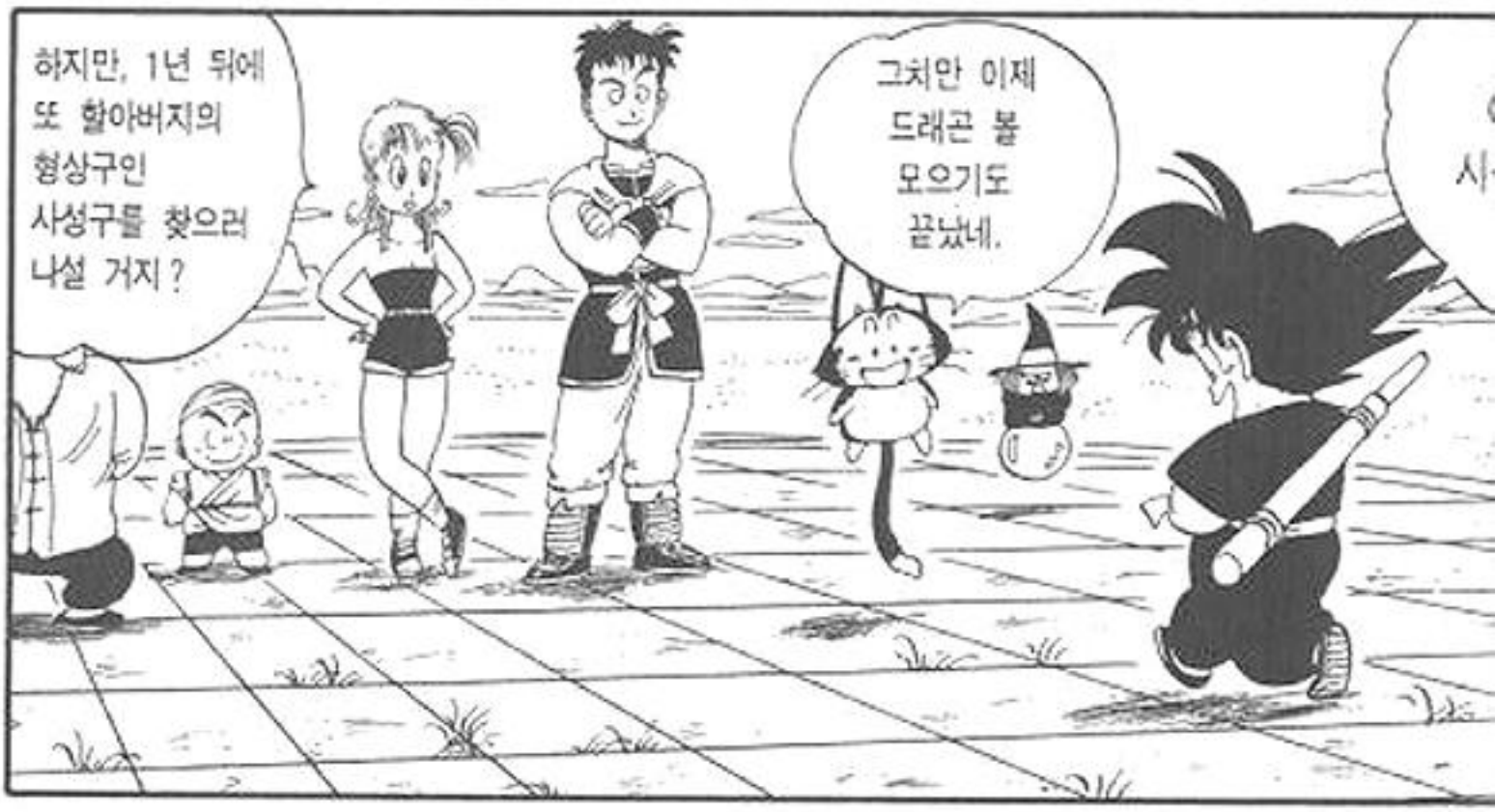

으!
그럼
우파가
신났겠네!


만세!!
그래,
살아났어!


이히히
~!
착한
일을
했구나.


저 녀석이 진짜 이 세상을 구할 인물 맞아…?
휴~!
쉬 쉬!
……
글쎄….


오줌마려!


하지만, 1년 뒤에 또 할아버지의 형상구인 사성구를 찾으러 나설 거지?
그치만 이제 드래곤 볼 모으기도 끝났네.


이젠 다음에 열릴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목표로 수련이나 하자.
그럼!


그럼 이제 다시는 구슬 찾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용케도 잡았네!


사성구는 사라지기 전에 내가 붙잡았지.

그 얘기 말인데 ….

손오공이 없을 때 부탁을 해서 나도 무천도사 님 밑에서 수련 하기로 했어!

뭐? 그게 정말!?

그래, 기본부터 다시 수련할 생각이야.

수련도 좋지만….

저 할배 밝힘증은 배우지 마!

너 자꾸 밝힘증, 밝힘증 할래…?

그럼 모두 함께 수련하네!

너는 좀 달라.

엥?

넌 이미 상당한 실력이지만….

더욱 실력을 늘리고 싶겠지?

응….

더 강해지고 싶은데….

그렇다면 더 이상 내 밑에 있으면서 수련을 해봤자 시간 낭비야.

그보다는 좀더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해라.

대사 죽인다…! 나 정말 말 잘하네….

멍~~~……

세상은 넓으니까 좀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네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더 강해져서 날 놀라게 해다오!

좋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재미는 있겠네!

그럼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만나자!

기대하며 기다릴게!

그럼 나 그렇게 할래!

분 재미있 거야

알았어!

어쨌든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만나!

아니, 3년 뒤야. 참가 선수가 늘어서 무술 대회는 이번부터 3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어.

예!? 그 이번엔 손오공 5년 뒤에 볼 수 있나요

손오공,
열심히
수련해!

어림없다.
내가 질 줄
알아!

다음 무술
대회에선
손오공을
완전히
꺾어야지!

잘 지내,
크리링.

3년 뒤….
아무튼 오래
못만나겠네.

히히!
나도 커질
텐데 뭘.

두고 봐!
3년 뒤엔
분명 너보다
내 키가
더 클 테니까!

다음에
만나면
부르마도 좀
얌전해졌
겠지?

너 정말
까불래!?

그루…

성과가 많은
여행이 되도록
해라!

잘 가라.

그럼 나 갈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열심히 해!

응?

아니,
잠깐!


저…
저 사람
수련은
상당히 힘든
거구나….
너…
너무
심하다.


억!?
전 세계를
근두운
없이 알아?
그래야
수련이
되지.
근두운은 타지
말아라! 걷고,
달리고,
헤엄쳐!


후다닥
또
만나!


그럼
그러지,
뭐!
헤헤!


저 녀석,
괴로운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재… 쟤는
천하댁평
이라니까….

엑!?

자, 자! 우리도 집까지는 뛰어가자!

쩔끔

너도 빨리 수련해! 스승 주제에 오공한테 질 순 없잖아!

잠깐만-! 나랑은 아무 상관 없잖아-!

헥헥헥~!

헛둘!

헛둘!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행을 떠난 손오공…. 그리고 무천도사 밑에서 수련에 힘쓰는 크리링과 야무치…. 그리고 다음은 3년 후…, 드디어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다시 시작된다…!

헛, 둘!

헛, 둘!


AIR PANIC
부아아아……양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번엔 분명 야무치 님이 우승할 거예요!
드디어 천하제일 무술대회 구나….


이제 곧 이번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열리는 파파야 섬 도리안 공항에 도착합니다….
좌석의 안전 벨트를 매주십시오.


각오해! 3년 동안 수련한 실력을 시합에서 보여주마.
내가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될걸?
PAFPAF

으으윽~! 비행기만 타면 비행기를 납치하고 싶어져…!

……

……

참아요, 런치 씨!

잭키 춘이란 할아버지도 있잖아.

손오공이 있다는 걸 잊었니?

후후후…. 두사람 모두 꿈 깨셔~!

죄, 죄송하지만 이제 곧 착륙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겠어요…?

스, 스튜어디스 언니, 나 응가 마려워!

예!?

모르는 적! 타인처럼…!

무… 무천도사 님! 우리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으윽…! 우욱…!

빠, 빨리 착륙이나 해줘!

아, 알았어!

제113화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전 접수가 다 끝나 버리겠다!

무슨 화장실에 이렇게 오래 있어?

아~! 미안, 미안! 오래 기다렸지? 응가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나와서~!

으이그~! 주책도 없이 큰소리는….

죄송합니다. 무술대회장까지 빨리 갑시다!

예!


와글 와글 와글 와글
끼익
天下一武道会
AH 320
이야-! 정말 오랜만이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어!
그래!
자, 접수 시켜야지!
아, 예!
에…, 야무치 선수 하고….
근데 손오공이란 애도 접수 시켰나?

녀석, 설마 까먹은 건 아니겠지….

정말 골치아픈 놈이야.

뭐 하는 거야, 손오공 녀석…. 마감이 끝나버리겠네.

아직도…?

저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 그 지난 번에 준우승한 애 말이죠?

참가자접수

살살 좀

상금이 50만 제니라…. 나도 나가 볼까…?

안 돼요! 이 시합은 무기를 쓰면 안 되거든요.

오겠지, 걔도 대회를 기다렸을 텐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

쉿!

서, 설마 당신이…!?

잭키 춘이라면 지난번 우승자 아닙니까?

이건 비밀로 하시고….

자!

잭키 춘이란 이름도 적어 넣어주슈….

예?

참가자 접수

쉬했어!

신선님은 응가도 자주 하셔.

아, 그냥…. 잠깐 화장실에….

어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쩌지! 겨우 3분 남았어!

누군가 했더니 무천도사 아닌가?

어흠!

히히힛! 그 고약한 알버릇이랑 못생긴 얼굴은 여전하군.

자네 아직도 살아있었나?

흥, 뭐야. 학도사잖아.

엥?

이 대회도 정말 형편 없어졌군.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진짜 무술이란 게 뭔지 모두한테 보여줄 생각이거든. 그래서 내 제자들도 함께 참가하기로 했다구.

이거~, 내가 웃기는 소문을 들어서 말야. 자네 제자들이 지난번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었다면서?

하하하! 그건 정말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라니까!

아니?

우승은 내 제자들 차지라서. X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짐 싸서 돌아가는 게 좋을걸?

헤헤헤! 미안허이….

흥….

이거 재밌는 시합이 되겠군.

헹! 가자. 저런 멍청이는 상대할 필요없어.

닥쳐! 이 팔푼아!

뭐라고? 이 늙은이가!

손오공 씨~!

그보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

흥! 학도사라고, 왕년에 내 라이벌이었지.

저 고약한 할아버진 누구예요…?

저기 와!

잠깐, 온다!

예!

할 수 없지. 푸알, 네가 손오공으로 변해서 접수시켜!

야—호!!

모두들!!

안녕!

헉헉!

오공
이다-!!

아!
예, 예.

손오공이
왔습니다.

다들
잘 지냈어!?

야,
오랜만
이다!

흥~!
나도
많이 컸어.

그래!?

와!
키가
꽤 컸는데!?

아니,
너 옷차림이
왜 그리
지저분해?

어?
네가
부르마야!?


할아버지가 수련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두운은 어땠어?
사람 조마조마 하게 만드는군.


거, 거긴 완전 지구 반대편이잖아!
잭 지금 제정신 이냐…?
야… 야호이?


응, 야호이란 데서부터 헤엄쳐서 왔어.
너, 너 설마 헤엄쳐서 온 거니…?


웅성웅성
왈글왈글
武道会
天


와 와
무술대회에 참가하실 선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선을 실시하고 있으니 경기장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자! 드디어 시작이구나!

헤헷－！

역시 난
이 도복이
제일 좋아！

저기…,
오공 녀석….
3년 사이에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글쎄….
별로 변한 것
같진 않은데….

꼭 모두 다
예선 통과
해야 해－！

파이팅！

그래！

자, 이제
몇년 동안
배운 것을
다 써먹어
봐라！

예！


競武館


와글
와글
와글
우와!
지난 번보다
선수가
더 많아졌어.
어?
쟤네들 3명은
지난번 대회에서
날리던 녀석들
이잖아….


놔둬.
또 화장실
가서 응가
하나보지
뭐!
엉!?
금방 여기
있었는데.


무천도사
님은?
어라-?


그래, 맞아.
지난번
우승자야!
아니,
저 할아버지는
잭키 춘
이잖아…?


역시
왔네!
아! 이거
오래간만
이군.
잘 지냈니?


할아버지!
음?







다음은, 제114화 예선 서바이벌

왈
왈
왈
추첨
난 71번…,
2조
후반부야.
야,
다행이다.
난 1조
뒤쪽이야!
난 1조
앞쪽이야.
競武館
다행이다!
모두 흩어져
있어!
3
4
으음….
난 178번이니까
4조야.
할아버진
몇 조야?

추첨을 마친 선수는 예선 번호를 확인한 다음, 각 조의 경기 장소 근처로 모여주세요.

그러면 8명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전선수를 뽑는 예선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1

2

와글 와글 와글

그래!

잘 하자, 크리링!

1조

무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1대1로 이 경기대 위에서 싸우며, 아래로 떨어지거나, 기절하거나, 「졌다」고 하면 패배입니다.

1조

에~, 그러면 이제 1조의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선수는 경기대 위로 올라가 주세요.


흥,
애숭이로군.
뚜둑
뚜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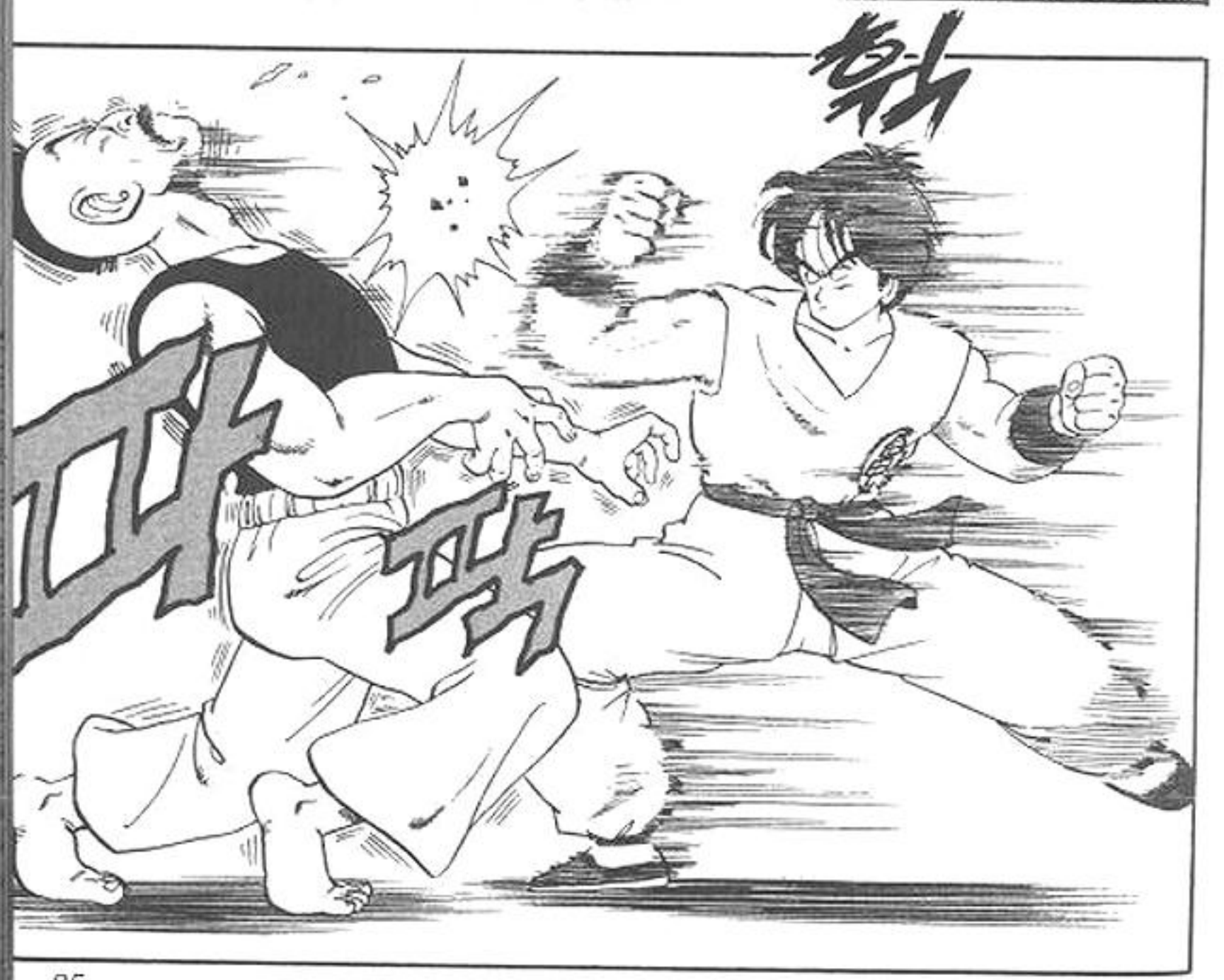

첫 판이니까
조심해서
해야지.
파이팅,
야무치!


샤


그럼
시합 시작!




야앗!!


퍽
퍽

우와ㅡㅡ아

꽈...당

꾸벅

기절!
2번의
승리!

어, 저기
크리링이
하네!

와!
큰 선수하고
붙었어.

뭘!

멋지다!
많이
수련했구나!

시작!!

언제라도 좋아요.

먼저 공격 하시죠.

이 꼬마 대머리가!

건방진 소릴 하는구만.

꼬마 대머리?

짜안

꾸벅

한 손으로 끝장을 내주마!

얏!!

휘이이

앗!!



콰다—…
3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력이 늘었네—!
아냐,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 곤란혀….

뭐야?

흥!

크흐흐!

겨우 그 실력으로 버기다니, 정말 웃기는 놈들이야….

어?

넌 뭐야?

무천도사 님의 라이벌인 학도사란 기분 나쁜 할아버지 제자래.

너희들, 예선에서 나랑 만나지 않은 걸 행운으로 생각해라.

하긴, 어차피 언젠가는 이 무술 대회장에서 내 손에 혼이 날 테지만….

물론….

그런 우술로 8명 안에 들었을 때의 얘기라네.

빨랑 꺼져, 혼내주기 전에!

호오, 허풍 하난 대단하군!


재수 뽕이다! 허풍떨기는 세계 챔피언 감이야!
으~! 저 자식을 그냥~!
내 차례야. 뭐 열심히들 해봐!
너야말로 허풍 떨지 마!


그래?
아니, 저 친구 솜씨가 대단할 거야.


저러다 지면 맘껏 비웃어 줘야지!
저런 놈들이 원래 더 별볼일 없다고!
와글 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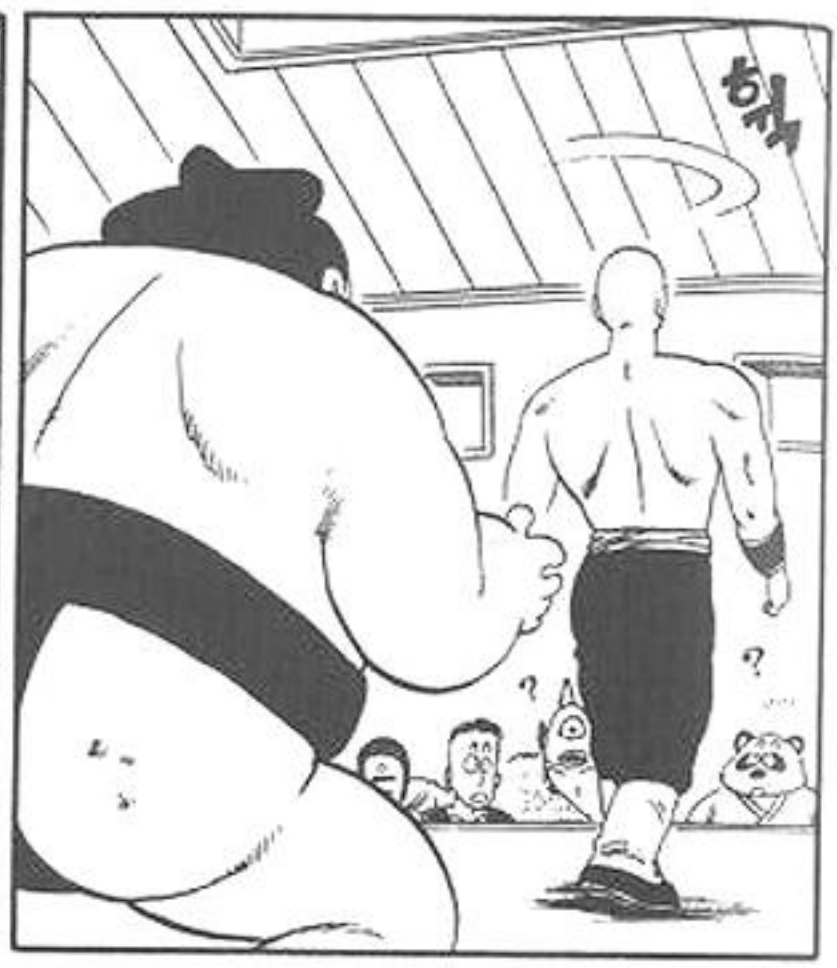

슈!!!!


이야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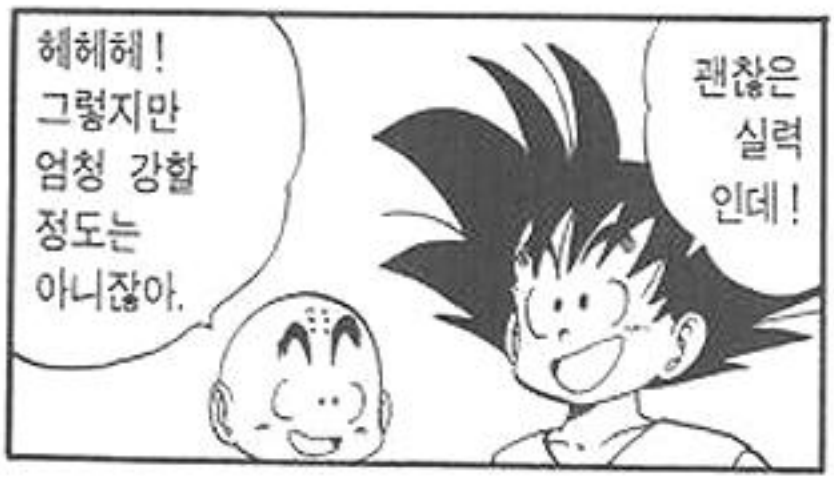

파파파파


!!


털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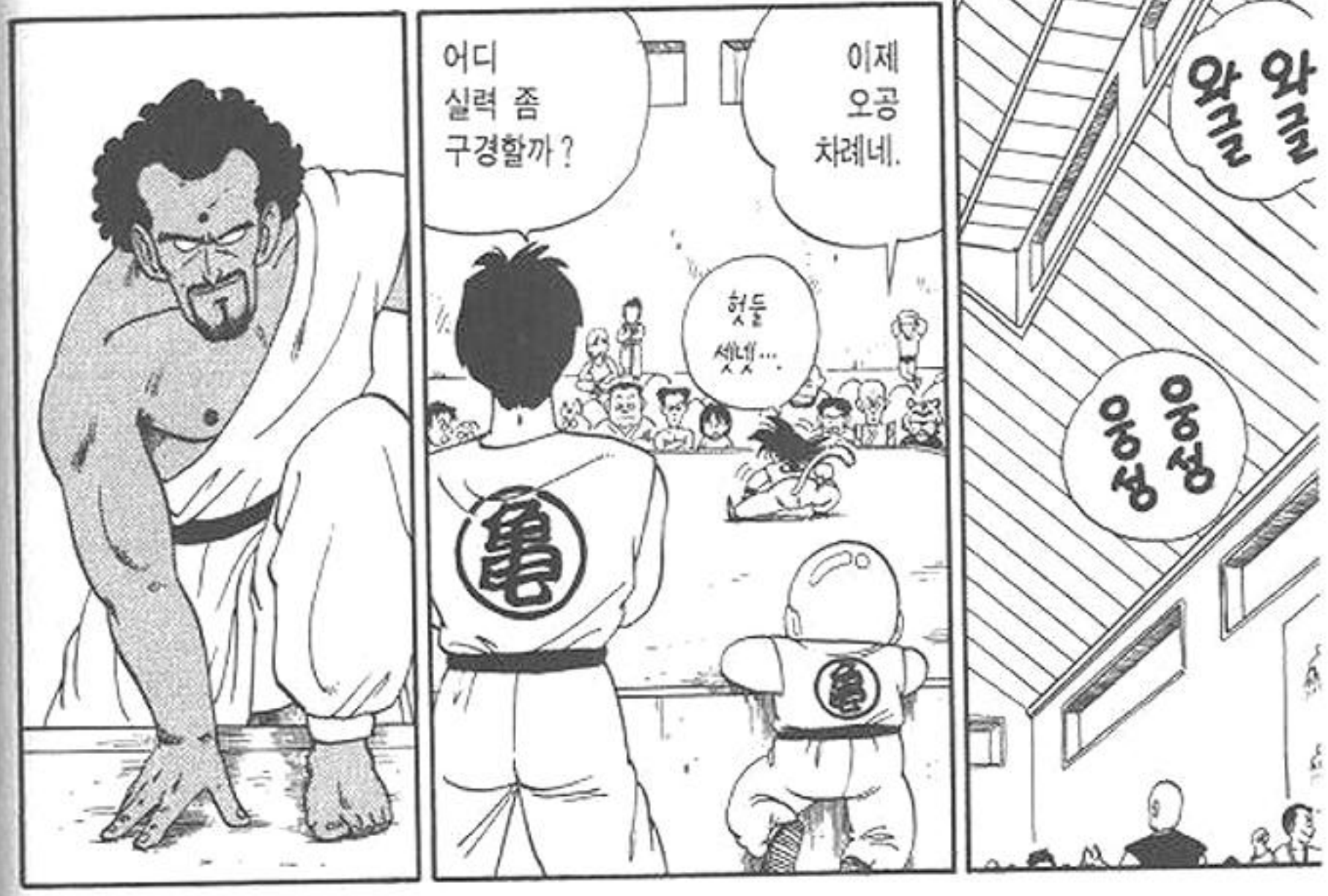

휙
?
?


지금 뭐 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지…?
이봐-! 들것 가져와!
기, 기절! 99번 승리!


헤헤헤! 그렇지만 엄청 강할 정도는 아니잖아.
괜찮은 실력인데!


그리고 발차기가 2번 들어갔어.
수도로 4번….


바보들! 예선부터 내 실력을 다 보여줄 것 같나…


와글
와글
웅성
웅성
이제
오공
차례네.
어디
실력 좀
구경할까?
헛둘
셋넷….


이런
이런.
아주
귀여운
상대로군.


꾸벅
꾸벅


이, 이봐!
저 사람은
차파왕
이잖아!?
차,
차파왕…!
웅성
웅성…

어쨌든 무서운 실력을 가졌대….

예전에 출전했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대전상대한테 한 대도 맞지 않고 우승을 했다더군…!

저… 저 사람이 차파왕…?

오공 녀석! 첫 판부터 갑자기 엄청난 상대와….

차파왕…이라고?

시작!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손오공이니 열심히 싸우면 또 어떻게 될지도….

으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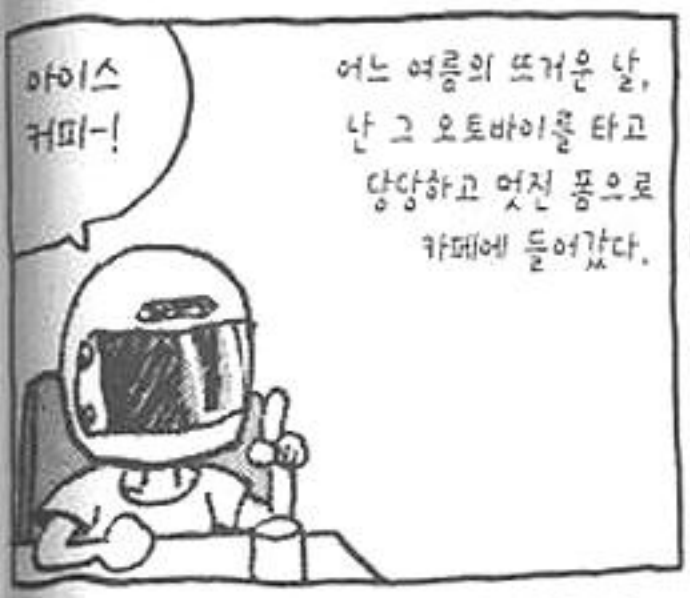
안심해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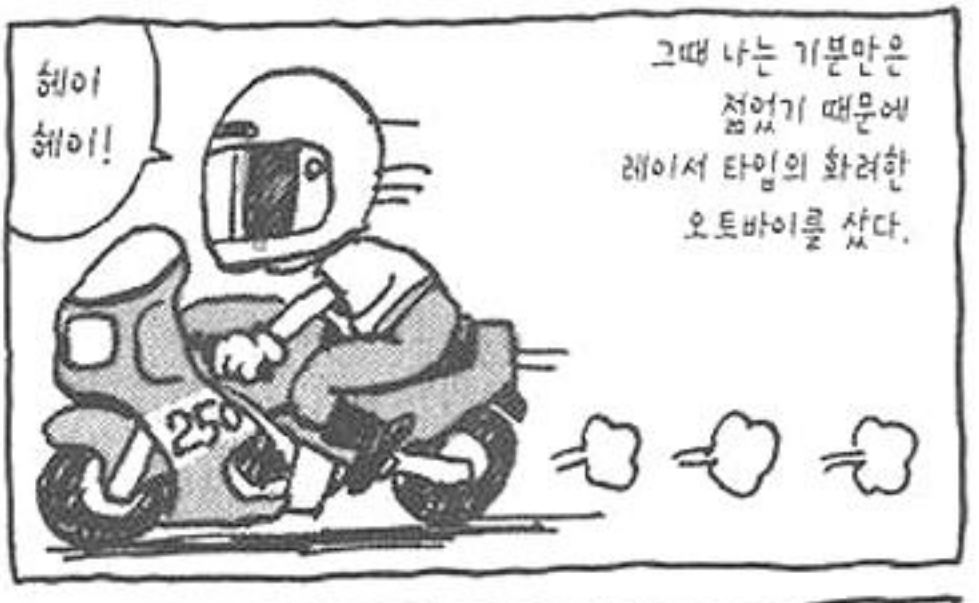
실화 낙서만화

그때의 나

토리야마 아키라



어느 여름의 뜨거운 날,
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당당하고 멋진 폼으로
카페에 들어갔다.



그때 나는 기분만은
젊었기 때문에
레이서 타임의 화려한
오토바이를 샀다.

난 의기양양해져서,
멋지게 타는 모습을
한방 보여줄 생각으로
재빨리 아이스커피를
원샷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내 오토바이를 보고,
다른 손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난 확실히
들었다….



근데,
어쩌된 일인지
몇번을 킥해도
엔진이 전혀
걸리질 않았다.





창을 통한
시선을 느끼면서
난 재빨리
그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어떤 사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안녕히」란
인사를 한 다음
10분 동안이나
꼴사납게 킥을
한 적도 있었다.



사실은 창쪽에서
안 보이는 반대편의
다리로 열심히
바닥을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대로는 너무도
왕쪽팔림!이란 생각에,
나는 엔진이
걸린 척을 하며
그 카페 앞을
빠져나왔다.

지금 이 오토바이는 없다.

엔진이 쉽게 걸리는 다른 화려한 오토바이로 바꾼 것이다.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115화
예선 서바이벌 2탄

어,
잭키
춘 씨!

으음…,
차파왕이라…,

자, 먼저
공격하시지!

손오공도
첫 판부터
엄청나게 귀찮은
상대와 붙었군.

그런가
봐요…,

鳥山明
BIRD STUDIO

자, 오공이
3년 동안
얼마나
늘었을까…?

흣!

자, 그럼
먼저
공격한다!


퍽!


휘익


와-아
빠르다!


…큭!


비틀"
탁


후후후…
역시 보통 꼬마는 아닌걸….
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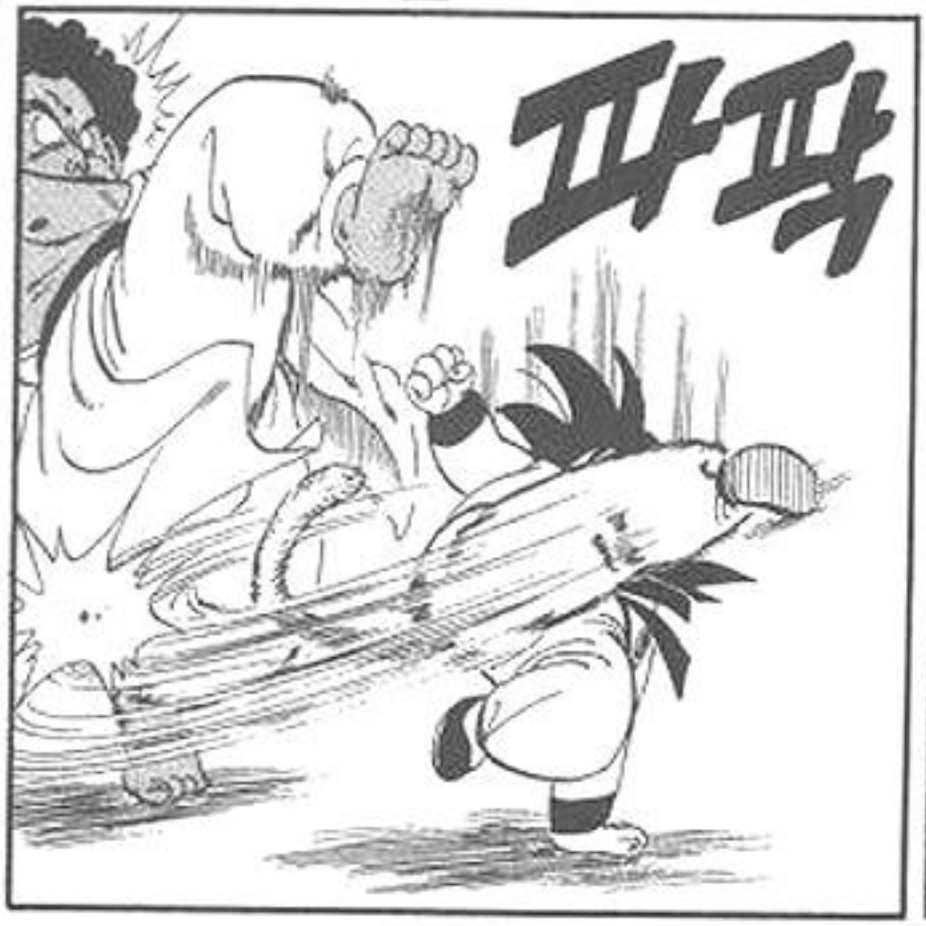

드디어 팔수권이 나오는군!
큰일났네…. 열 받았나봐.


부들


팔수권…?
동작이 너무 빨라서 팔이 여덟 개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날 원망 마라.
패배를 아는 것도 또한 수련이니까.


ウッ
ウッ
ウッ


파팍


대단한걸!
다 막아내고
있어…!!
우와,
무서버…!


발목쪽이
허술했어!
콰당
착


크아아
앗!!


빌어먹을
꼬맹이가-!
으…,
이, 이 자식
…!


아니!?


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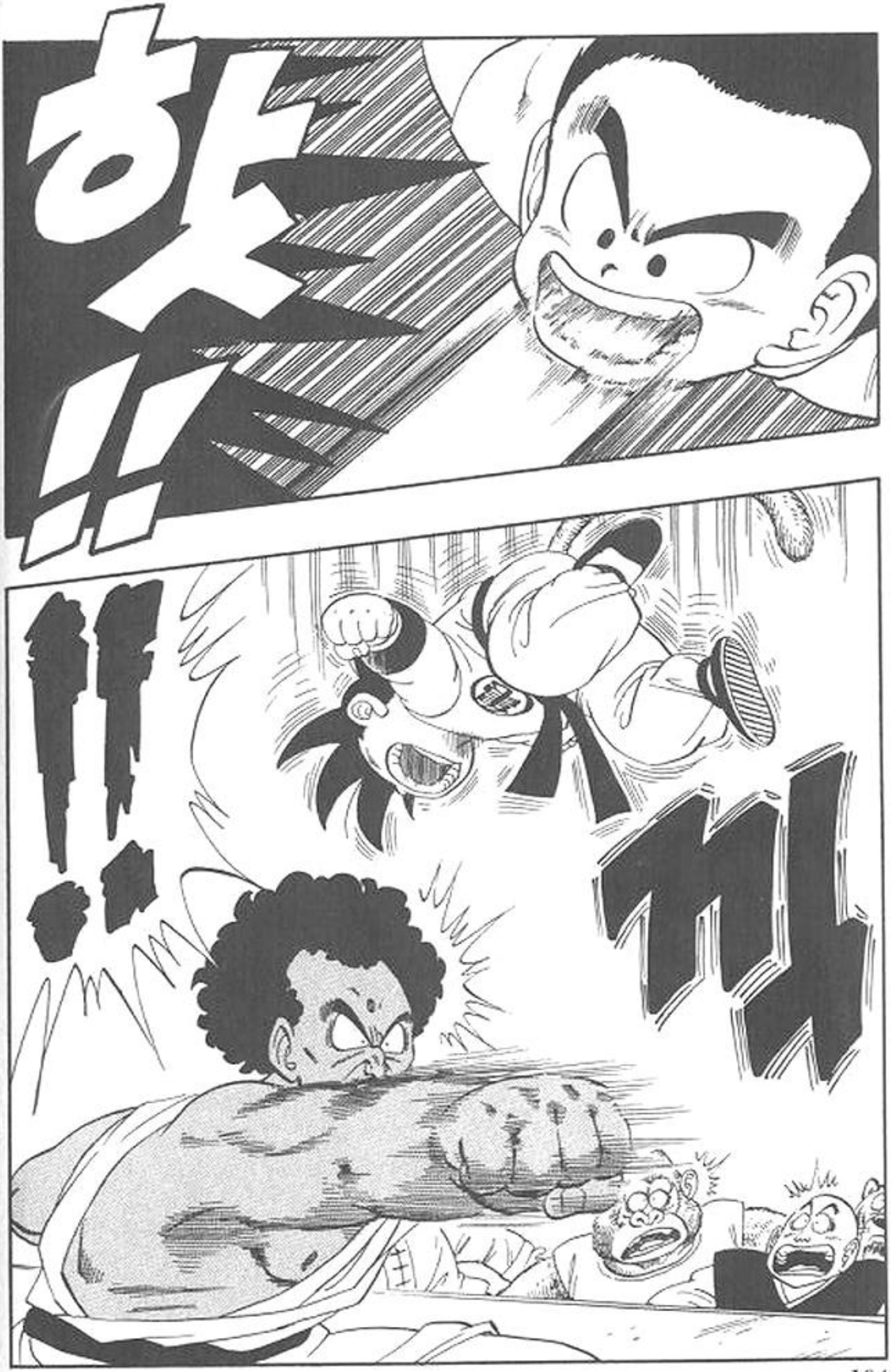

어, 어디로 갔지?


아니, 왜요?
아, 안 돼! 실수를 했어.


우하하하! 공중을 날다니, 멍청하긴!
공중에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그건 내가 바라던 바다!


위다—!


휘릭
파악
스아아아아아
걸렸다!!
휘익


ぎょ!!
!!
ガ

받아랏!!

털……썩

!!

자, 장외!

28번, 손오공의 승리!

꾸벅

으…! 믿을 수 없는 장면이야.

폭풍처럼 내뿜은 숨으로 자신을 순간적으로 허공에서 멈추게 하다니…!

굉장하다…. 차파왕을 단숨에 누르다니….

이겼다, 이겼어!

오공, 괜찮겠어? 처음부터 너무 힘껏 싸우면 나중에 지치잖아.

전혀 힘껏 싸우는 게 아닌데-!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야.

빨리 너희들처럼 강한 상대와 힘껏 겨뤄보고 싶은걸!

그… 그래…. 하하하….

이…이거 나도 당해낼 수 없을지 몰라….

타앗!!

과연 지난 번 대회보다 실력이 더 늘었네….

역시 저 할아버지는 대단한 솜씨야!

이거 이번 무술대회는 정말 굉장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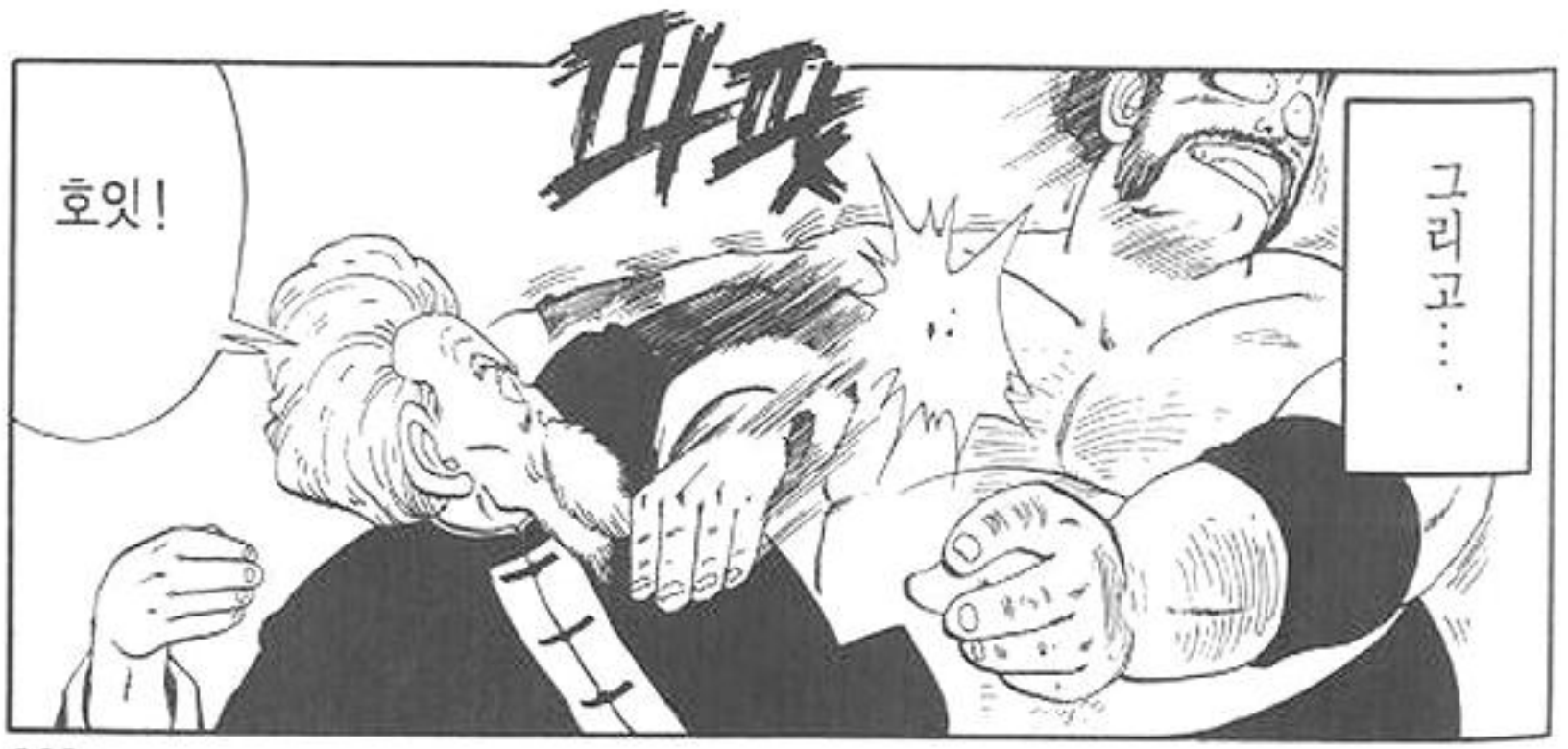
미… 미안!

내가 너무 세게 쳤나….


競武館
그리고 예선 시합은
계속되어 182명이나
되던 선수는 점차
그 수가 줄어갔다….


1 2 3 4 5 6 7 8
54 55 56 57 58 59


무천도사의
제자
세 명은
모두 다….
멎지게
3명 모두 열심히 이겨서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단 8명의
선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호잇!
그리고….

오공과 저 할아버지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쑥 쑥

역시 세구나!

178번 승리!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전 결정!

그래!

모두한테 알려주러 가자!

또 세 사람이 다 함께 본선에 진출했구나!

대단해-! 정말 잘했어!

계속 안 보여. 여자 꽁무니 쫓아 다니느라 정신 없나보지!?

무천도사 님이 보이지 않네….

왔다 왔다

天下一武道会















다음은, 제116화 조작된 대전표

그러게.

제비뽑기에서 우리 셋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헛둘!

헛둘!

와글 와글 와글

예선에는 형편없는 놈들만 있었나 보군!

호오~! 너희 같은 엉터리 팀이 살아 남다니.

후후후! 네놈들을 관중들 보는 앞에서 실컷 두들겨 패주마. 기대하셔.

쳇! 너야말로 그 정도 솜씨로 남아있다니, 운 하난 정말 좋았군!


팔랑
아니지!


뭐야!?
너도
문어 대가리
잖아!?


문어
대가리!
너도
예선 통과했어?
농담이겠지!


두고
보자!
메롱!
자! 됐다,
차오즈.
쓸데없이
다투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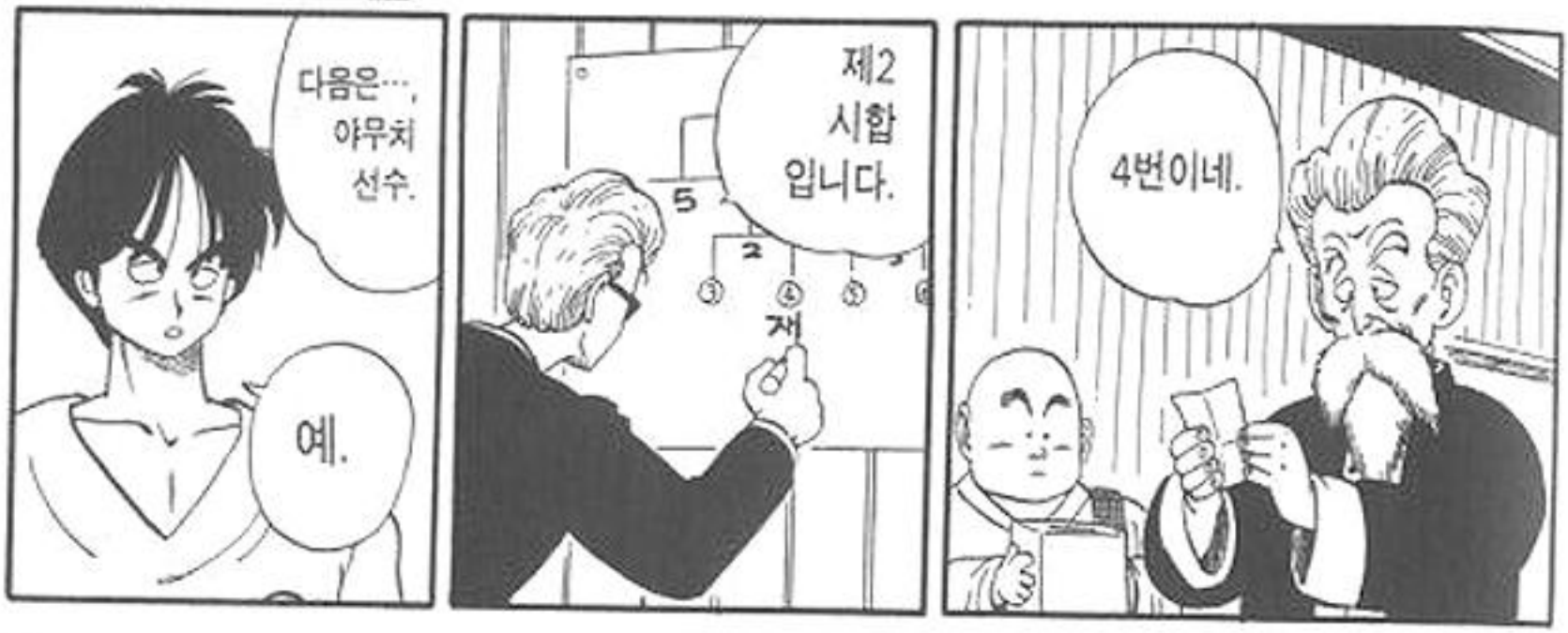

부럽지?
멍청한 놈!
한 가닥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더이상
건물은
부수지
말아줘요.
아,
이번에도
출전했군요.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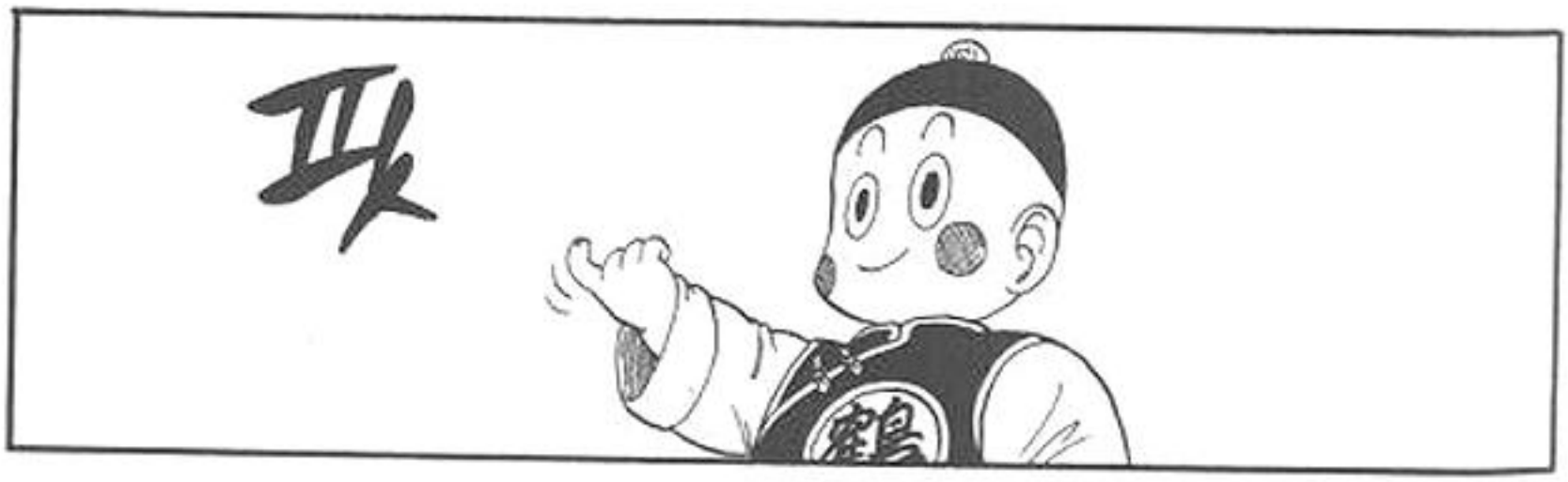

출전자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자!


좀 이르지만,
대전 상대와 순서를
제비뽑기로 정할 테니
이름을 부르는 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주세요.
7
5
1
2


자, 그럼 먼저 잭키 춘 선수부터.
그래, 알았어.
저 노인이 지난 번 우승자야. 적당한 녀석과 싸우게 해서 실력 좀 구경하자.
그래!
쿠르르…
……
뭐야, 너? 저 노인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니?
닥쳐! 쓸데없는 참견 마!
재밌겠군….
야, 차오즈. 저 녀석을 잭키 춘과 싸우게 해라.
응!


다음은…, 야무치 선수.
예.
제2 시합 입니다.
5
2
3
4
5
6
제
4번이네.


응.
저놈은 내가 먼저 상대하지. 알겠니?


끄


예, 제1 시합입니다.
1번 이네!
뒤적 뒤적…


다음은 펌프트 선수.
예!
핏
7번 입니다.
천진반 선수!
예!
부탁해.
응!
핏
2번이다!
음!
제1시합에서 야무치 선수와 대전합니다.
7
5
6
1
2
3
4
야무치
천진반

옛!

크리링 선수!

그 말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불쌍하군, 첫 판에 날 만나다니.

다음은…, 늑대 사나이!

예, 제3 시합입니다.

6번요!

피

그래! 내가 그런 괴물인 줄 알아?

아, 사나이 늑대 선수요….

사나이 늑대야!

틀렸어!

그렇지만 난 보름달만 뜨면 사람이 된다구! 알았어!?

늑대 사나이는 보름달만 뜨면 늑대가 되는 저급한 놈이잖아!

응?

으득

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추첨하세요.

그게 그거지, 뭐. 안 그래?

그럼 제2 시합에서 잭키 춘 선수와 대결 합니다.

3번 이다!

팟

왜 저러지? 저 녀석….

변태 아냐…?

이길 자신이 있나…?

이상한 놈이네…. 잭키 춘과 싸우게 된 걸 기뻐하다니….

크히히히 ….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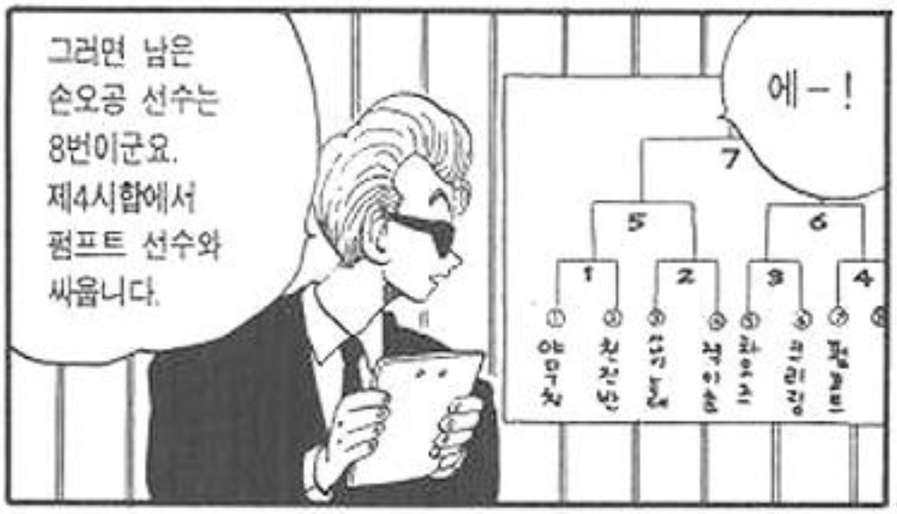
차오 즈야!

아냐!

이건…, 치즈라고 읽나…?


5번!
5번이군요….
그럼 제3시합에서
크리링 선수와
싸웁니다.


차오즈…?
끄


그러면 남은
손오공 선수는
8번이군요.
제4시합에서
펌프트 선수와
싸웁니다.
에-!
7
5
6
1
2
3
4


오공과
붙게 될까봐
조마조마
했어.
휴~!
다행이다.
저 꼬마네.


뒤적
뒤적
맞을까…?


당신,
내가
8번인지
어떻게
알아?
엑-!?


고…
고마워요….
당신
진짜
쪽집게야!
우와!
정말이네!

천, 저게 그렇게 재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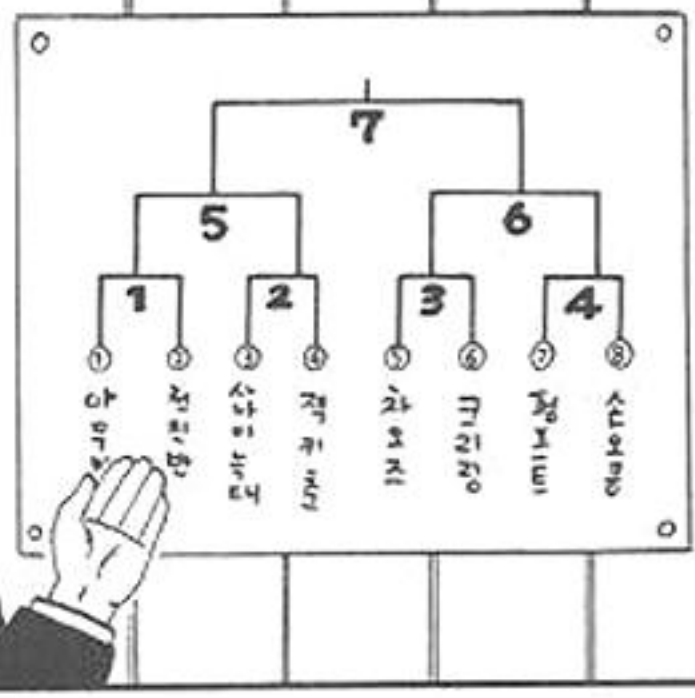
너, 넌 잠자코 있어…!

하하하! 무천도사는 개그도 가르치나…!?

……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시합은 무제한, 한 판 승부로 겨룹니다. 시합장에서 떨어지거나, 다운 당해 열을 셀 때까지 못일어나거나, 항복하면 패하는 겁니다.



앞쪽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럼, 방송으로 부를 때….

응! 먹을래!

그러고 보니 이번에도 시합 전에 식사를 할 겁니까?

흐흐흐! 정말 촌스러운 놈들이네.

……

이런 우연도 있을까?

다행이야! 우리 4명은 첫판에서 안 싸우게 되었어!

대전표를 아주 잘 짰다, 차오즈.

와

이봐! 멀었냐?

와 와

天下一武道会

어머!? 내가 이 자리를? 거짓말….

모처럼 런치 씨가 좋은 자릴 잡아줬는데….

정말…! 노인들은 이래서 귀찮다니까.

이 할아버지는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당동당동
당당당당
쾌하~~~앙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습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시작합니다!
와
와
와
와

그 여덟 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과연 누가 천하제일일까!?
우승 상금 50만 제니를
받을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선 대회에 참가한
무려 182명 유명선수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여덟 명의 선수!

天下一武道会

와 와 와

야무치
선수 대
천진반
선수입니다!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제1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야무치
님!

야,
나왔다!
나왔어!

호오! 네 자신이 묵사발 나니까?

네 허풍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겠군.

와

와

와

와

아무치 선수는 그 유명한 거북신선, 즉 무천도사 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이번 대회 본선 진출자 여덟 선수 가운데 무려 세 명이 거북신선의 제자들입니다!

슈~

그리고 이쪽의 천진반 선수 또한 거북신선과 쌍벽을 이루는 학도사의 제자입니다! 학도사의 제자 두 명도 모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다음은, 제117화 야무치의 에네르기파

드디어 막이 오른 천하제일 무술대회! 제1시합의 승리자는 과연 야무치일까? 아니면 학도사의 제자인 천진반인가!?

《 우승 》

결승전

5

1 야무치 / 천진반

2 사나이늑대 / 잭키 춘

6

3 차오즈 / 크리링

4 펌프트 / 손오공

와

와

와

시작하세요!

그러면 제1시합! 야무치 선수 대 천진반 선수!


흥! 마음껏 까불어 보시지. 곧 입 다물게 될 테니!
자, 기권하려면 지금 빨리 해라!


그럼요! 당연하죠! 저 정도 쯤이야.
와!
이길 거야.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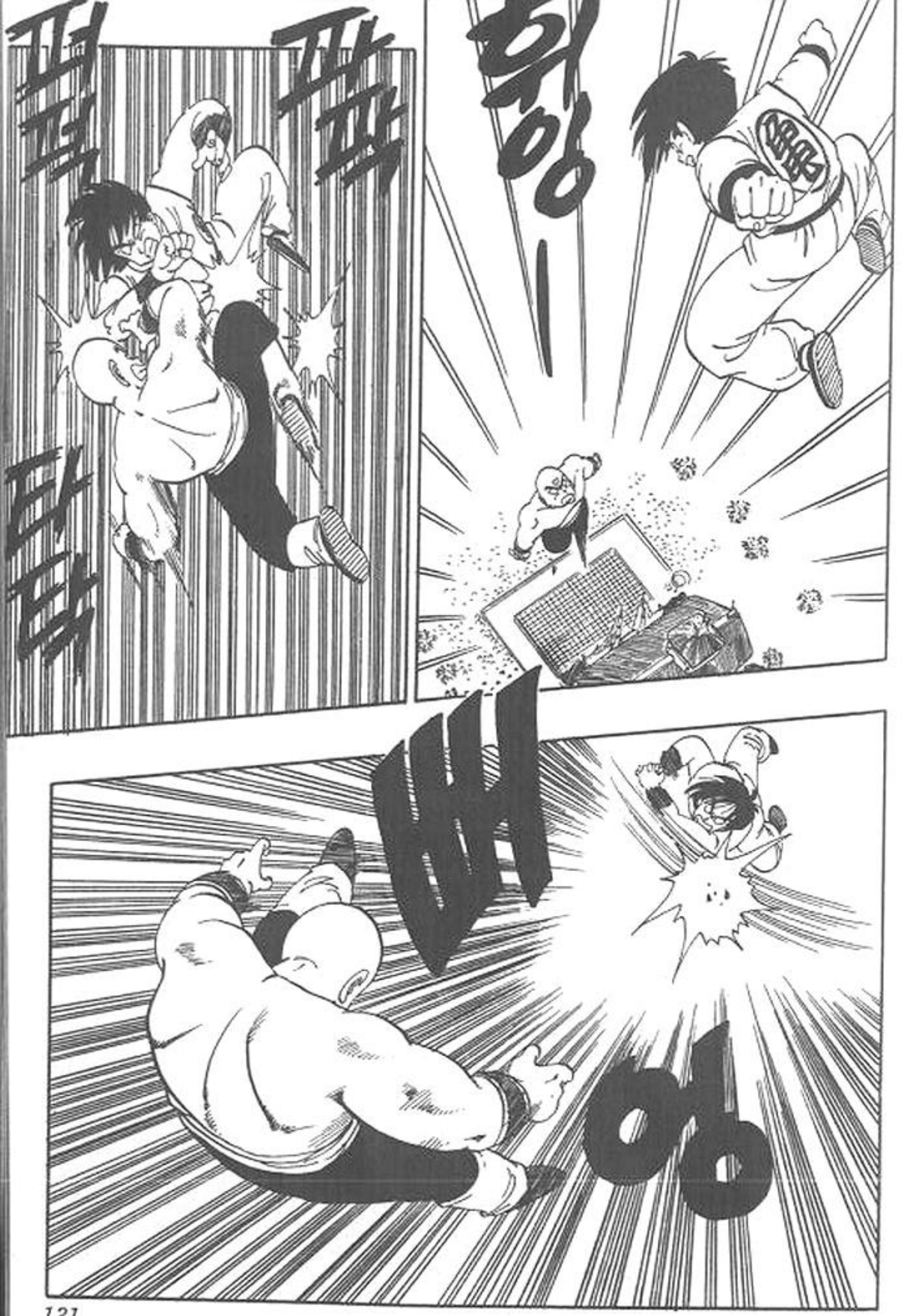

그렇지 않아. 저 녀석 셀 것 같은데!
헤헤헷! 저 정도야 누워서 떡먹기지.


따르르 따르르...


압!!
휘리리릭


탓!
휘릭
팟


!!
부웅
덕
부웅


퍽
퍽
퍽


탁
처
척
머엉 ~~…
우와! 대단 하네….
둘 다 잘 싸운다!
이, 이거 정말 놀랍 습니다!
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무서운 공방전…!
이… 이 녀석…. 생각보다 돌라 세잖아….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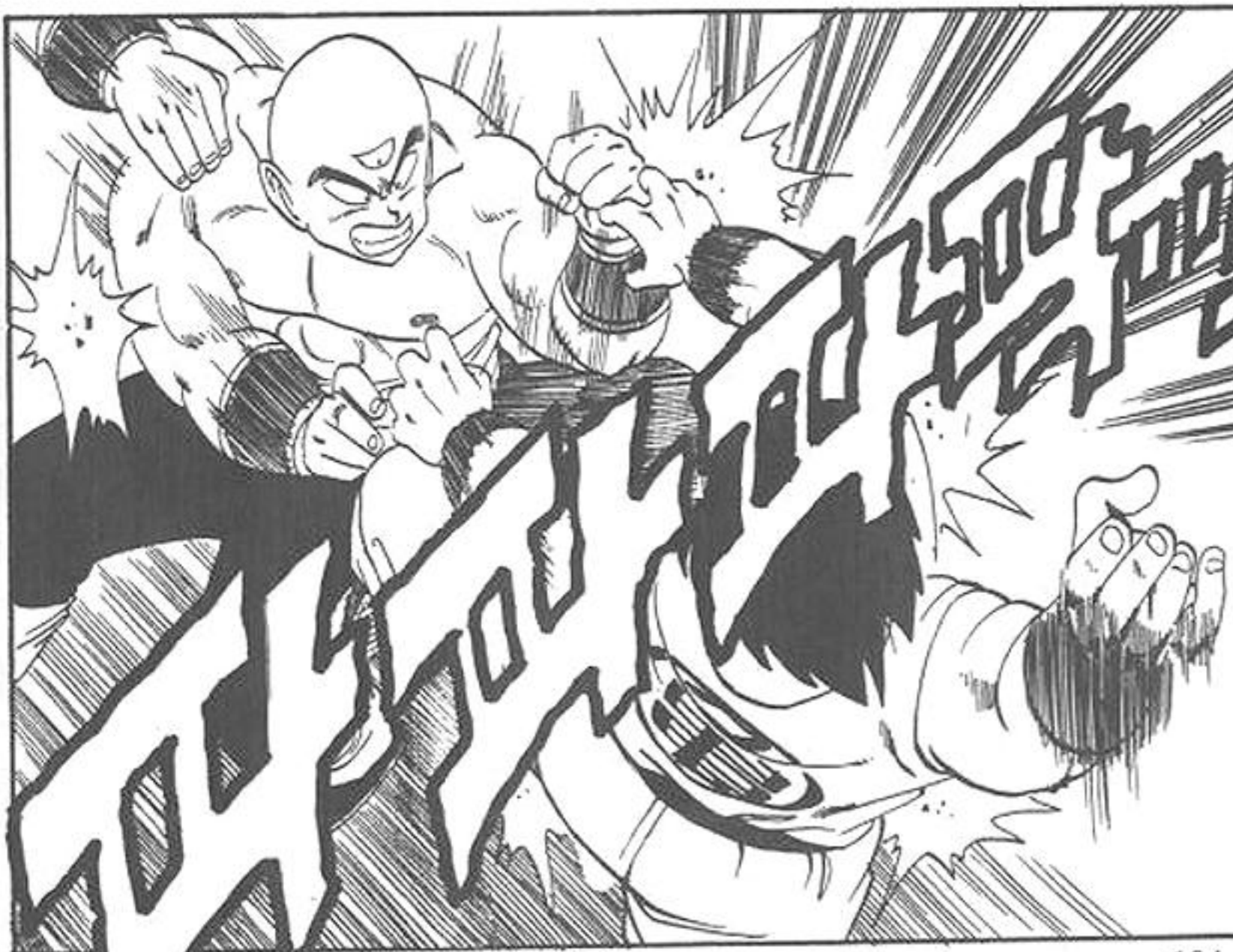
아니…!
이렇게 강한
녀석일 줄이야.
이 녀석. 입만
산 게 아니었어.

좋아!

간다
!!

신 낭아
풍풍권!!


앗!!




타
파
타타
파파팟


빵
이얍!!


쿵……
욱!
야, 야무치가 당했어…!
위험해!
히죽!
좋아…
매운 맛을 보여주마.

야무치 녀석이 … ?

에네르기 파라고… !?

아니, 야무치가 뭐 하려는 거지 ?

에네르기 파다 !

야무치가 어느 틈에… !

정말이야 !

에….

네….

웃 !!

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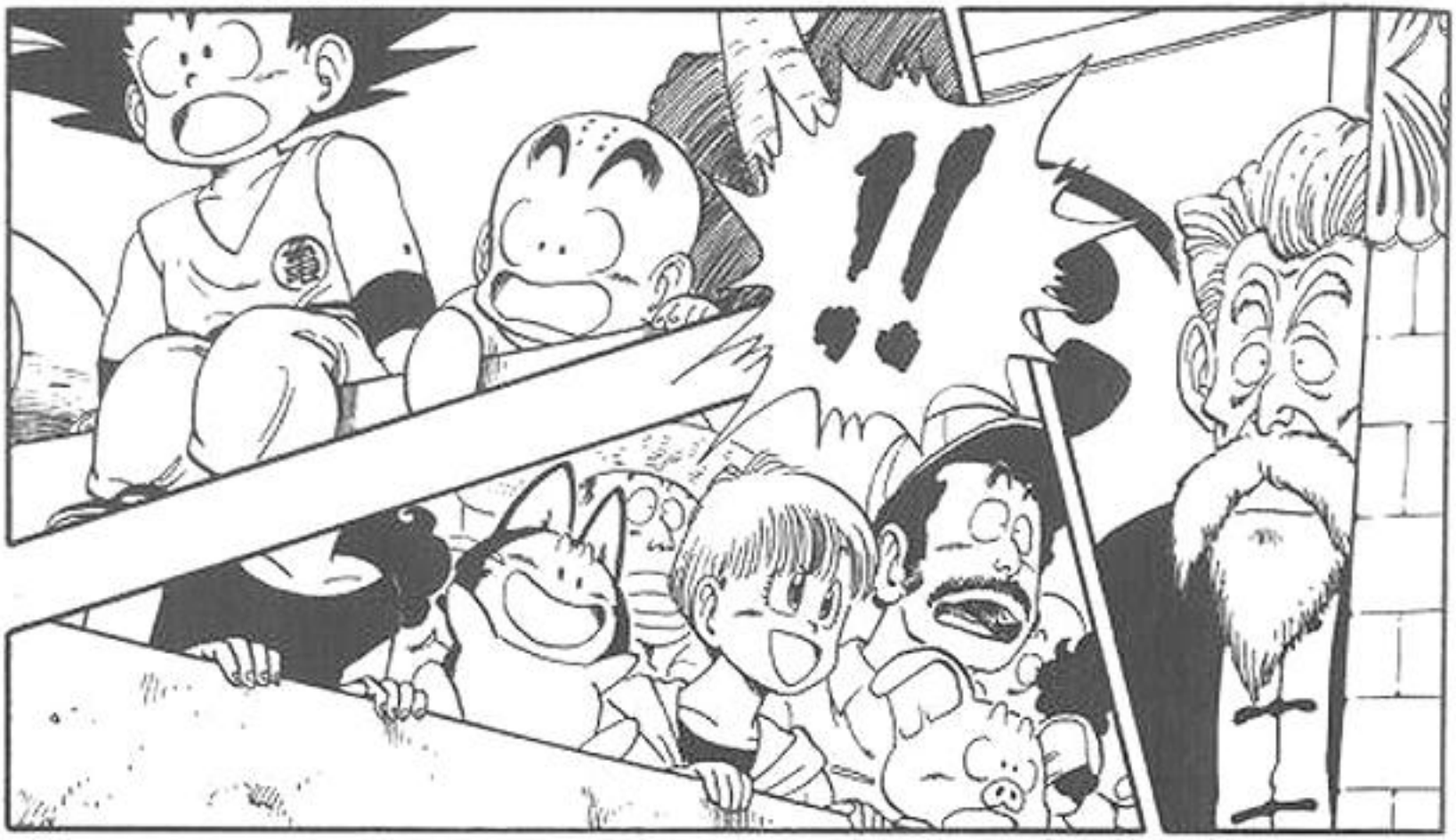

파!!
쌔쌔
!!
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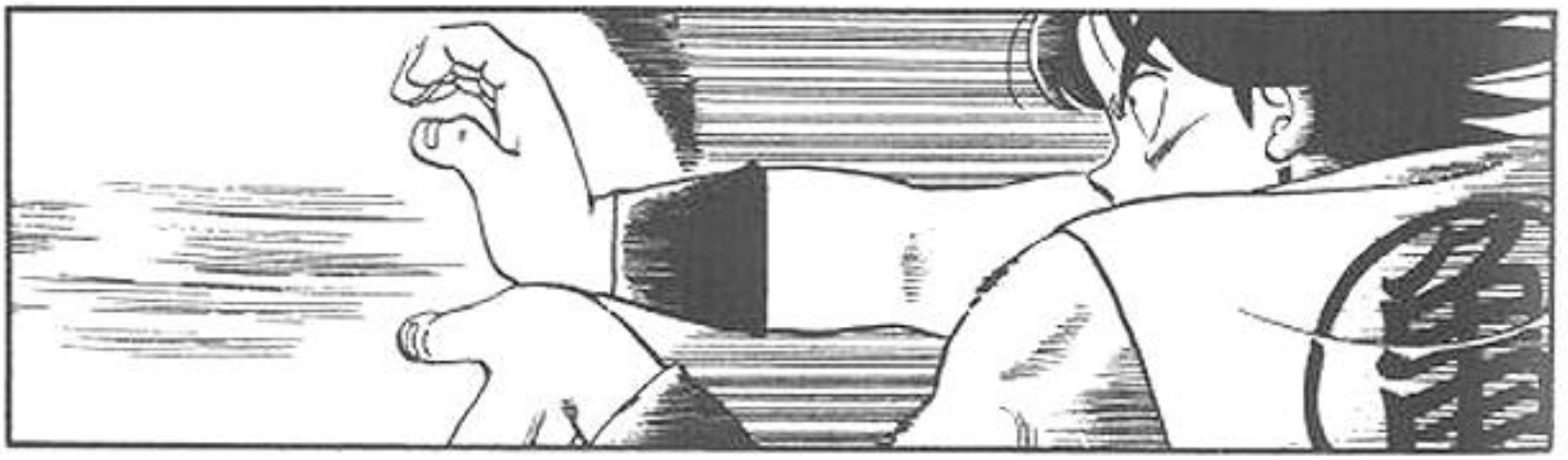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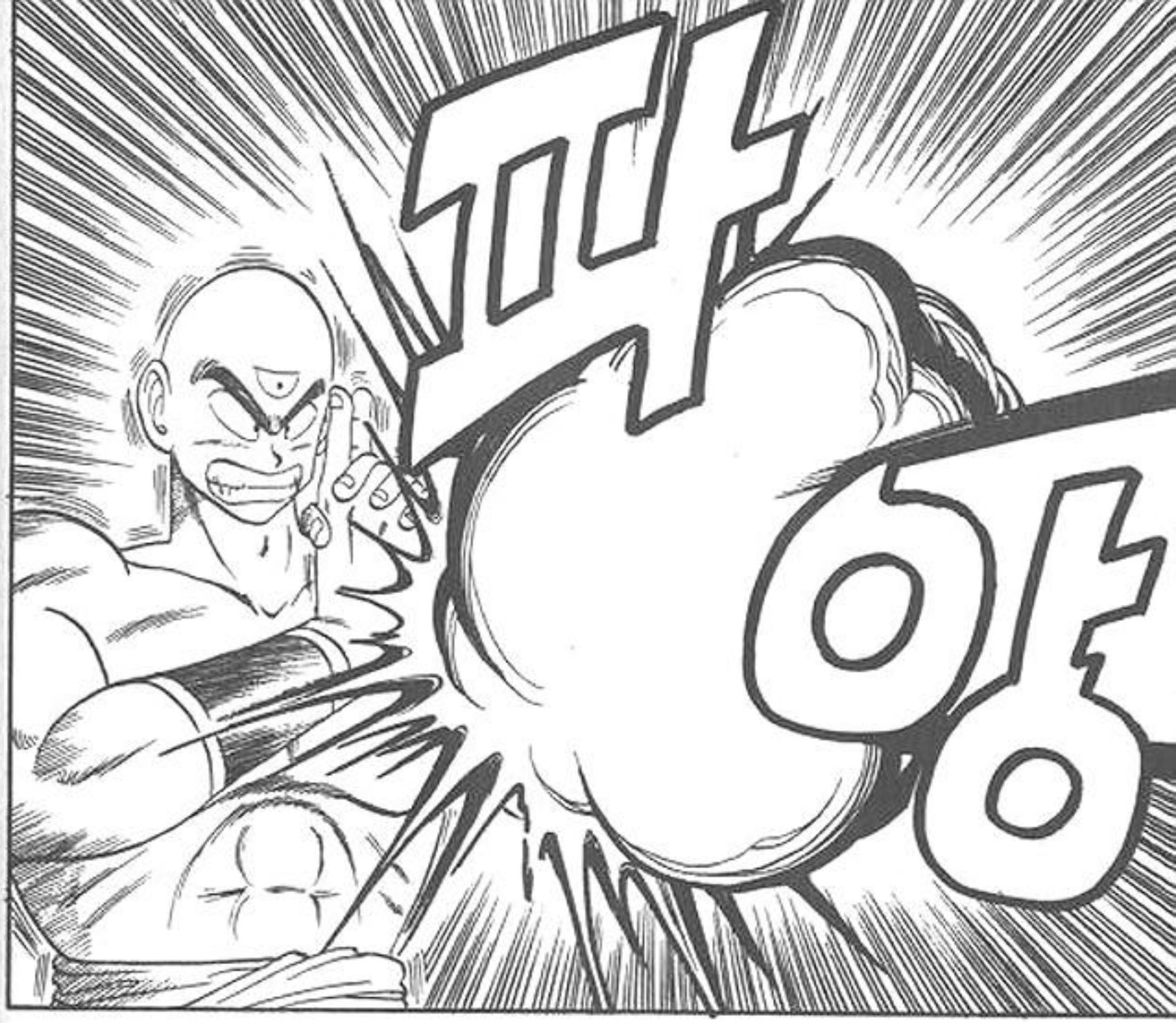
다음은, 제118화 야무치의 패배!

야무치 대 천진반의
숨막히는 대결!
뜨거운 공방전 끝에
야무치는 에네르기파를
썼다!
그런데…!


!!




앗!!


ゴト
ゴゴ


ゴゴゴ


크아오오!!!
!!
앗!
뭐지!?
받아
냈어!
저런
!!



히죽
팡
쾅
으아앗-!
꺄악!

으웃!
저런 놈이
있나!?

에네르기파를
튕겨내다니!

위험해,
야무치!

응?


H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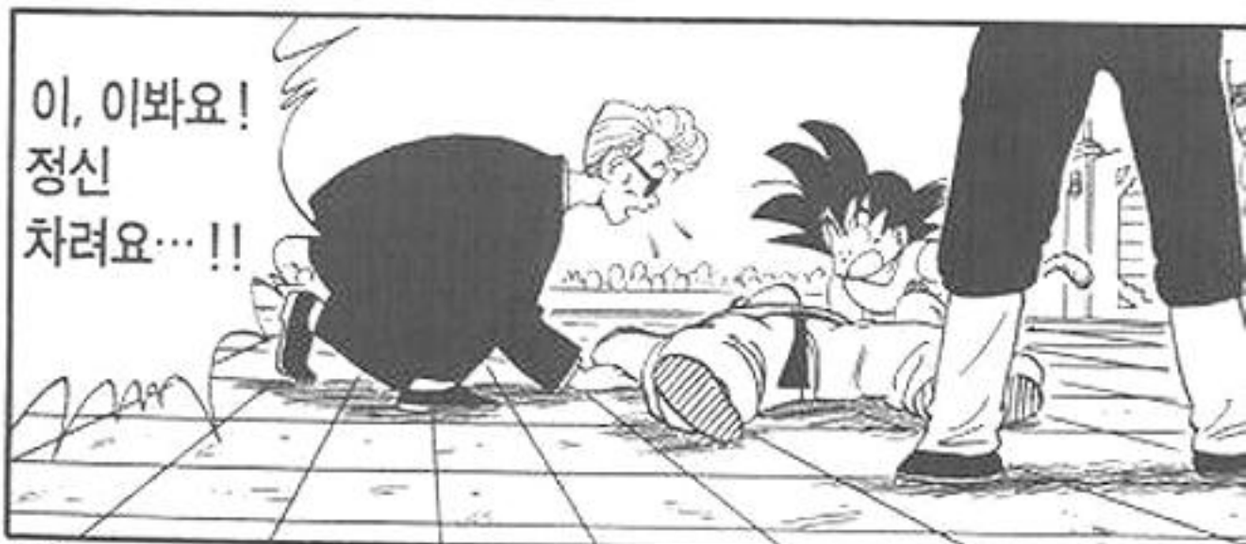



앗!!
안 돼!!
뿌
쟈
너… 너무해…! 다… 다리가 부러졌나봐!
……


조ㅡㅡ용


야무치
~!




이, 이봐요!
정신
차려요…!!

따, 따라서 천진반 선수의 승리입니다…!

야, 야무치 선수는 도저히 시합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봐! 승부의 판정을 내려야지!

야무치 님—!!

야, 야무치…!

다리가 부러졌어! 어서 병원으로 옮겨요!

예,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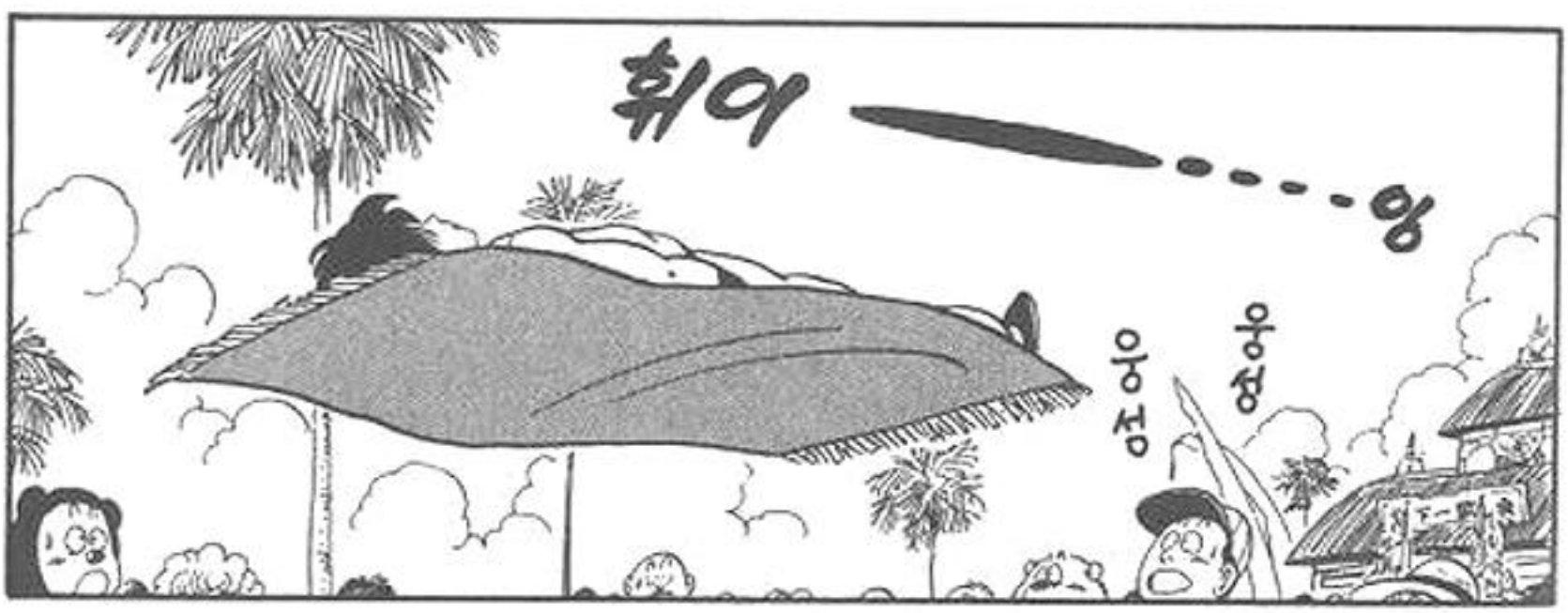
마법 융단으로 라해변!

BOM!

내, 내가 데리고 갈 테야!


자,
됐어!


영차!
오공,
도와줘!


휘이
잉
웅성
웅성


으득


그럼
나도 같이
가요!
나도
따라
갈래!


흐흐흐…!
죽이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난 마음씨 고운
남자니까.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공격
하다니…!
야비한 놈!
야무치는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어!
龜

내가 꼭
시합에서 하고
말 테다!

야무치의
복수는….

잘했다.
이 학선류의
위력을
잘 봤겠지.

히히힛…!

그보다,
니들 지금
다음 시합에
방해되니까
나가시지.

하하하!
네가
결승까지
남을 수
있을까?

잭키 춘
선수 대
사나이늑대
선수!
어서
나오세요!

그…
그러면
제2시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진반의
엄청난 솜씨는
겨우 맛만
보여준 거라고….

무천도사
녀석,
새파랗게
질렸을 거야.

그래도 거북선류는 생각보다 실력이 뛰어났어. 방심하지 마라.

뭘, 당연하지!

축하!

그렇게 째려보지 마.

…그 얘긴 내가 우승하고, 네가 준우승이란 얘기지. 이미 승부는 결정된 셈이다.

하지만 아마 지금 야무치란 녀석이 3명의 무천도사 제자 가운데 가장 실력있는 달인이었을 거야….

좀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구나.

그 자리에서 당장 때려 눕히지 않고 참다니.

할아버지, 파이팅!

와

와

다음은, 제119화 보름달의 원한

이어서
제2시합은
잭키 춘 선수 대
사나이늑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잭키 선수는
지난 대회의
우승자입니다!

상대인
사나이늑대 선수는
보름달을 보면
늑대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이상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크흐흐흐!
네놈과 싸우길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주
묵사발을
내버릴 테다…!

넌 왜 나를
괜히 미워하는 거니?
난 널 만난 적도,
괴롭힌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늑대 모습 그대로
지내게 됐어!
이런 모습으론
예쁜 인간 여자한테
하나도 인기 없단 말야!

닥쳐!
네가 지난 번
무술대회에서
달을
박살냈잖아!

입맛이
돼 까다로운
놈이네.

난 털
많은 건
싫어!

그러면
늑대 암컷을
사귀면
되잖아.

아,
그렇게
됐나?

와
와

그럼
제2시합을
시작해
주세요!

이제 시합을
시작해
주시죠….

저어….

크아아
!!


부웅
살짝
붕
풀짝
찰싹
콰당
이, 이노옴~!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이제 그만둬! 안 됐지만, 너와 난 실력 수준이 달라!
뭐, 뭐라고~!? 날 깔보다니.
나는 권법 30단의 실력파란 말이야!
아, 그래?


잠깐 보고 어떻게 알아?


아무래도 준결승에선 저 노인이랑 나랑 붙겠어.
아주 놀라운 솜씨야….


이거 정말 더욱 기대가 되는걸.
당근이지. 움직임만 봐도 난 알아….


쳇~! 그렇다면 저놈들한테 장외패는 없겠네….
대단한 기술을 쓰는 애들이구나…


야, 손오공! 쟤들 봐. 공중에 떠있어…!


이젠 정말 살려두지 않겠다!
제길~!

이아앗!!

호오!

저 아가씨 정말 죽이는데-!

쭉쭉 빵빵이야.

이런, 이런!

헉

찰

싹

이야압-!

파바밧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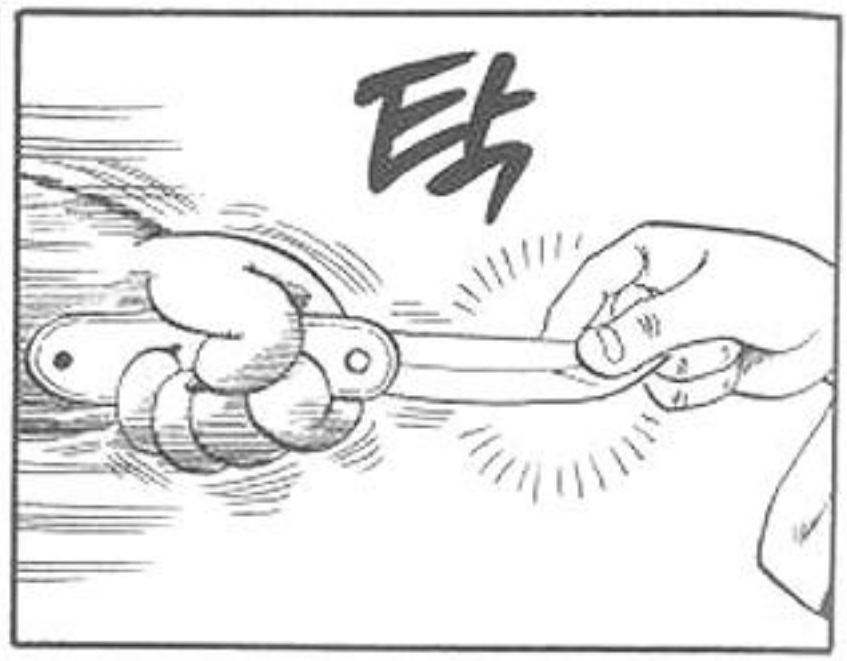
저 아가씨도 아주 매력있군.

큭!!


이얏!!
으…! 으으…!
자, 카운트나 하시지.

그래 ?
저 사람, 우천도사 님 닮지 않았나요 ?
나, 난 저 늑대에게 예선에서 금방 졌는데….
와, 과연 세다….
윈! 투! 스리…!
이런, 상당히 끈질긴 놈이군….
비틀 비틀
지…, 질 수 없어…!
세븐….
크크.
식스….
시합 따윈 관심 없어.
시끄러!
아앗-! 이건 안 됩니다! 흉기 사용은 반칙입니다! 사나이늑대 선수!
찰칵
죽인다…!
이얍!!
난 상관없어. 반칙패를 선언할 필요까지도 없다구.


윱…!
으윽!
성질도
급하셔.
그럼
안 되지.


탁


왓!
부웅


…이이익


휘익


콰당


내가 널
인간으로
만들어줄
테니!
자,
그만 해!


팡

당연히 그래야지. 딸리 항복해.

끝낸다고~!?

하지만 그 전에 시합은 끝내야지….

뻥이 아니야.

뻐, 뻥치지 마셔!

자, 손!

사삭

내가 닿을 없앤 걸 사과하는 의미로 잘 해주려 했더니만….

정말 버릇 없네.

무슨 헛소리야! 항복은 죽어도 안 해!

혁헉!

땡칠아!

아, 미안. 미안.

너, 정말—! 난 강아지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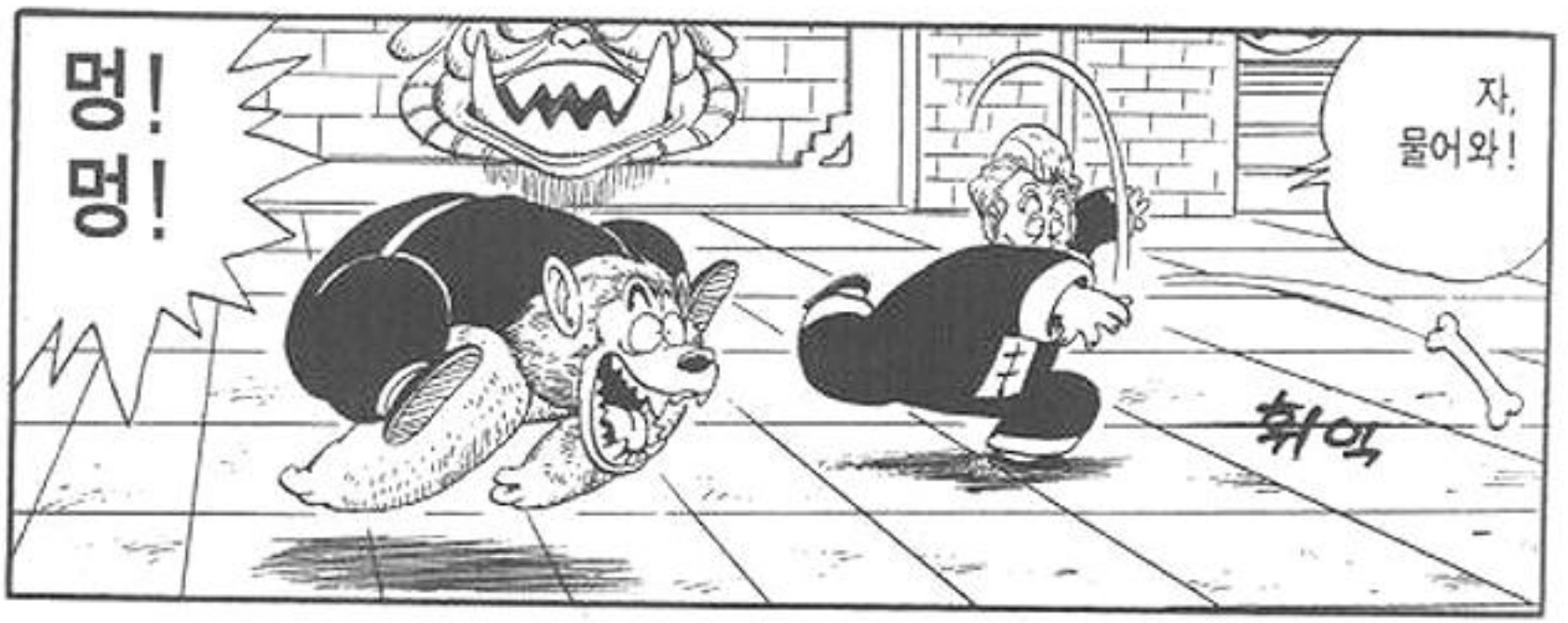
킥킥!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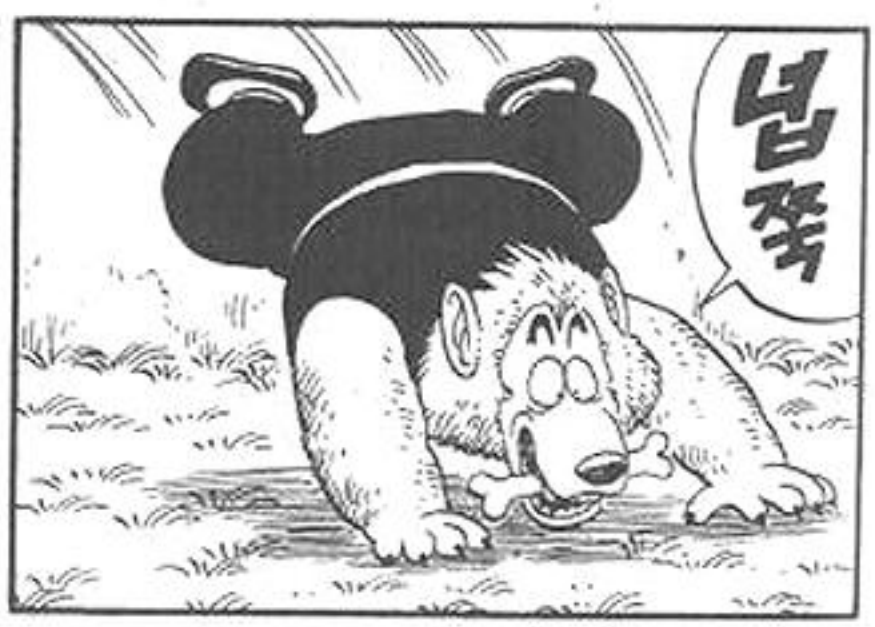
이눔 시키~! 도저히 못참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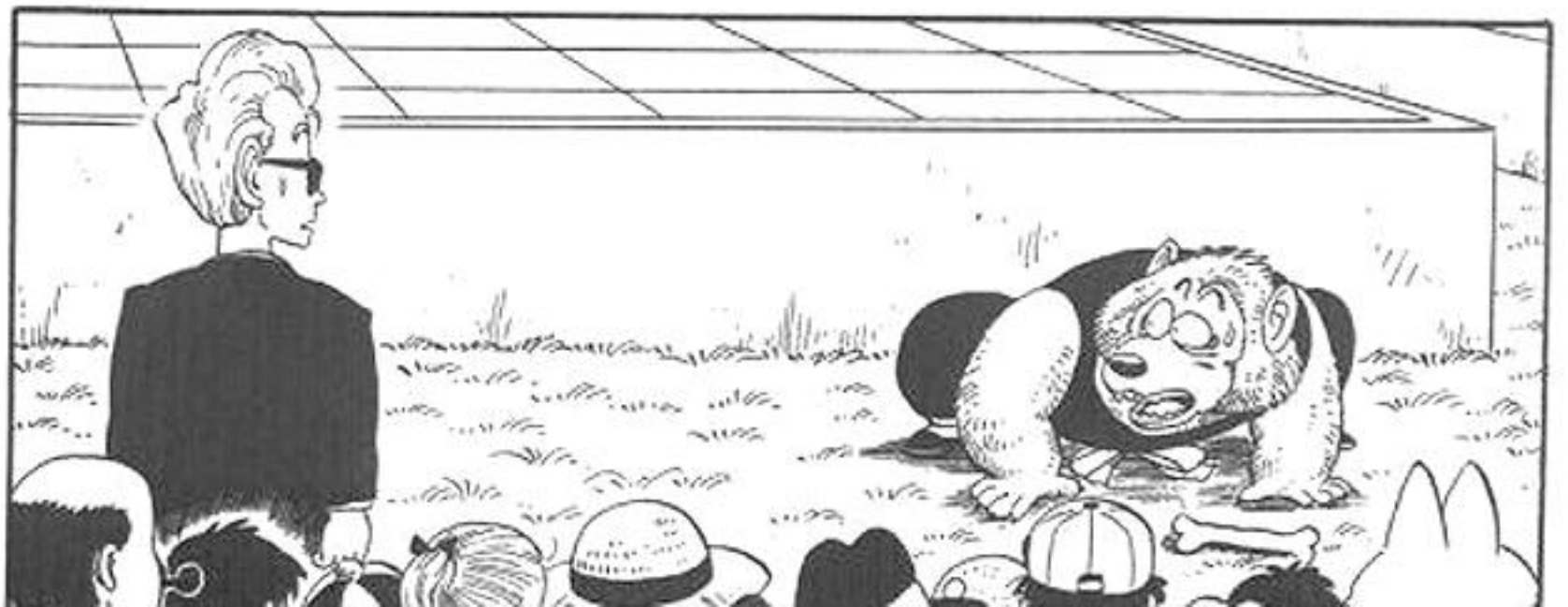

쏙


아,
미안해.
크르르르….
나, 나를
개 취급
하다니…!


멍!
멍!
자,
물어와!
휙


아앗!!


넙쭉




장외!
잭키 춘 선수의 승리!
하하하~
마지다
치, 치사한 자식-!
이야앗!!
정말 천방지축인 놈이네.
으윽!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근력술이다!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데 왜 말을 안 들어?
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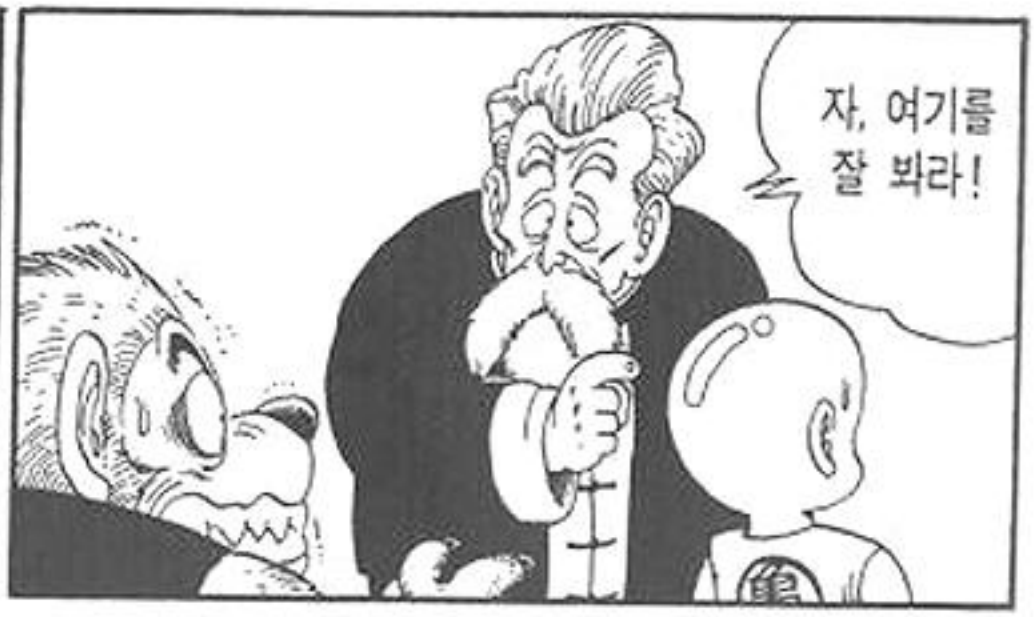

크리링,
이리 좀
와!
예?


저 할아버지,
달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리 와서
뒤로
돌아봐.
저한테
무슨 볼일
이라도?
왜요?


오호,
너
똑똑
하군.
저…, 설마
내 머리를
보름달 대신
쓰려고 하는 건
아닐 테죠…?


자, 여기를
잘 봐라!


삭


걱정 마.
최면술을 써서
저 늑대만
달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손오공도
변신하게
되는데….
농담이
지나쳐요.
내 머리가
보름달이
되면….

압!

쩔끔

……

자, 이거 봐.
달이다,
보름달이야.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

우와아앗
…!!

龜













다음은, 제120화 뜻밖의 도동파

크리링 선수는
아시다시피
무천도사의 제자!
차오즈 선수는 라이벌인
학도사의 제자.
또 다시 두 문파의
대결입니다.

자, 제3시합은
크리링 선수 대
차오즈 선수!

와

와

와

크리링!
파이팅!

좋아!
고마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선에서
저 녀석 싸우는 걸
봤어야 하는데….

와 와 와

샥

시작해 주세요!

그럼!

너, 싸울 생각 없니?

아니, 뭐야!?

앗!

샤—악


욱!
샤악


파


부웅
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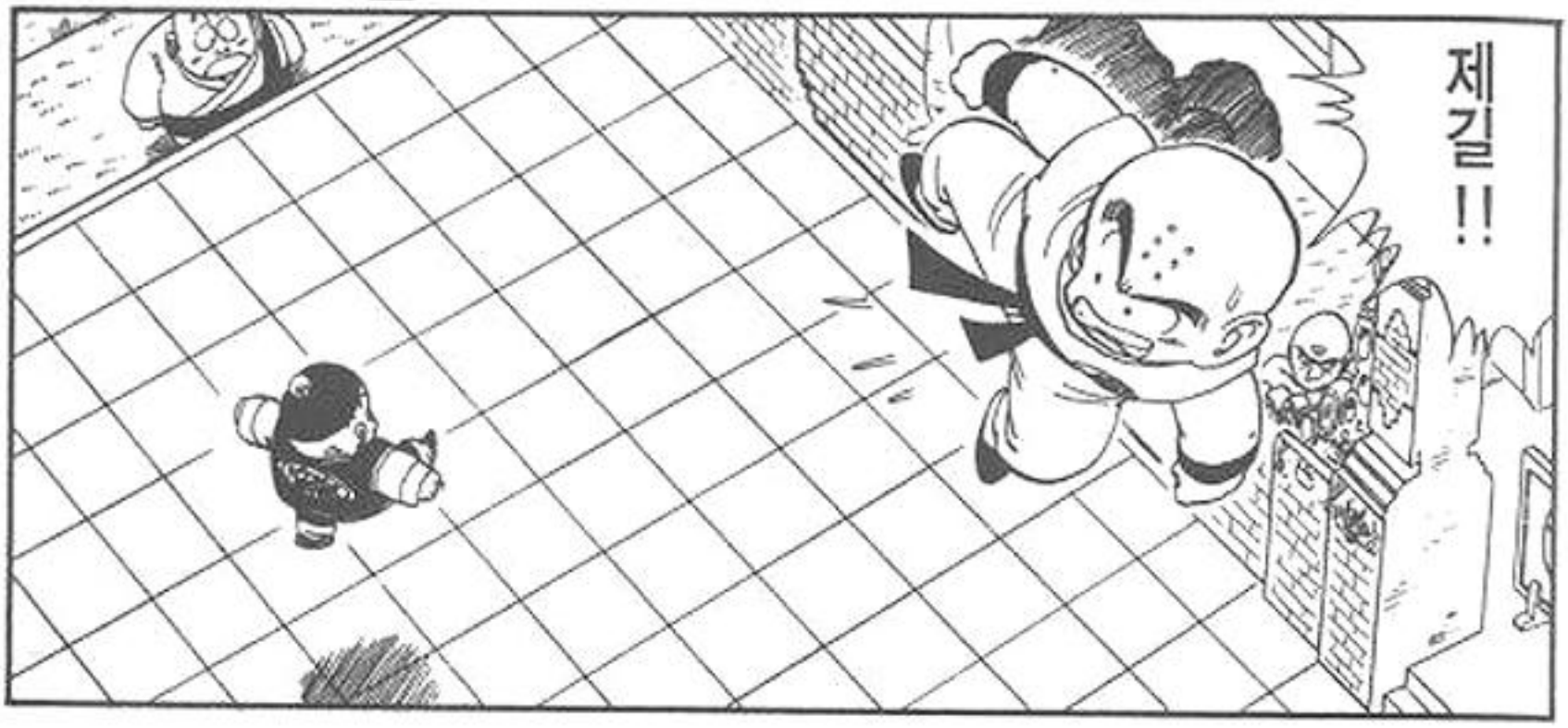

방글
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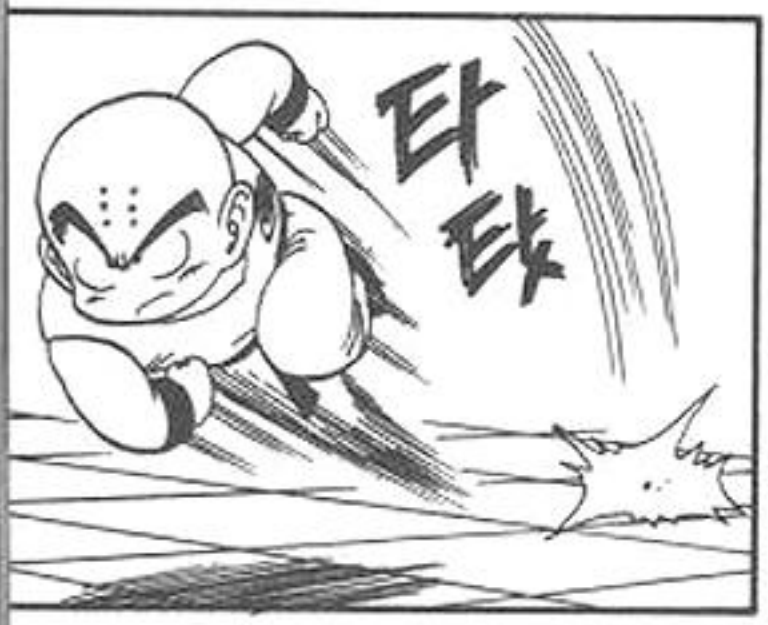

파

!!
부웅


멈칫
武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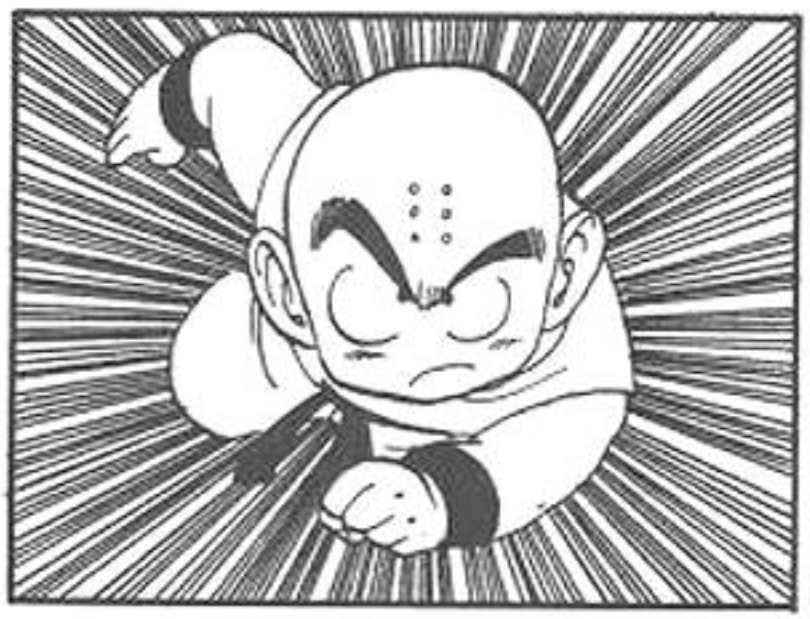

파
파


제길!!


타
탓


시무룩…


헉
워라




훠 악


휭

사,
사라
졌다!

어!?

이쪽!

삭

그러니까…,
젓가락을
잡는 손이
오른손
이니까…,
밥그릇이
왼쪽…

왼쪽!?

왼쪽이다,
차오즈!

빠앙



잘한다, 크리링!
혼내줘!
붕웅
휘릭
슈—웅
쳇!
에잉! 훨훨 날아 다니니…!!
이럼 경솔하게 공격할 수가 없잖아…!
저건 학선류의 특기인 무공술이군….

아, 차오즈 선수!
놀랍습니다!
자유자재로
공중을
떠다닙니다.

와
와

호우!
너, 아는 것도
꽤 많네!

암마!
넌 할아버지라
불러야지!
너가 뭐야!

공격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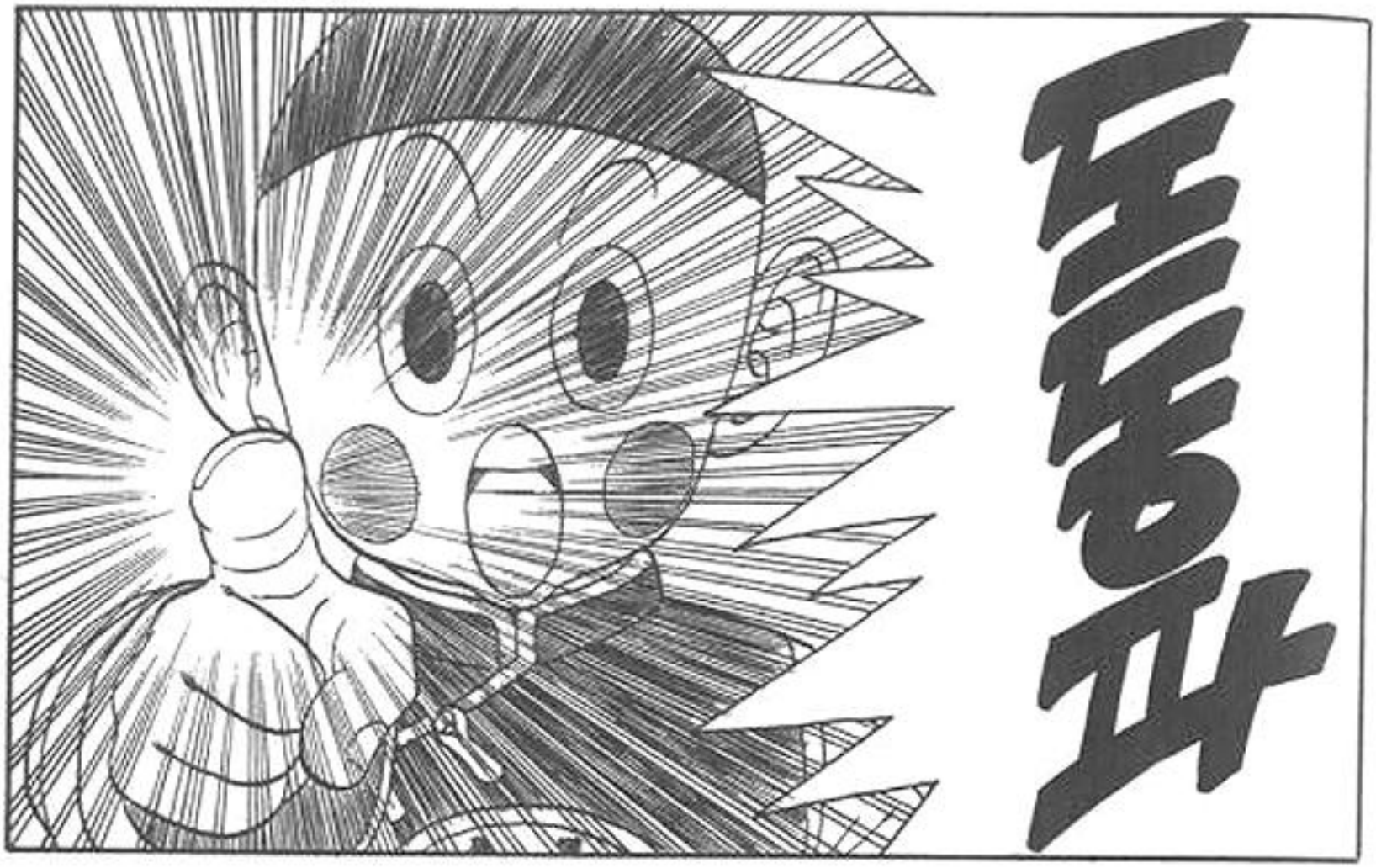
자,
이제!

큰일났다….
점프해서 공격하다가
빗나가면 자칫 장외로
나가기 쉽고….

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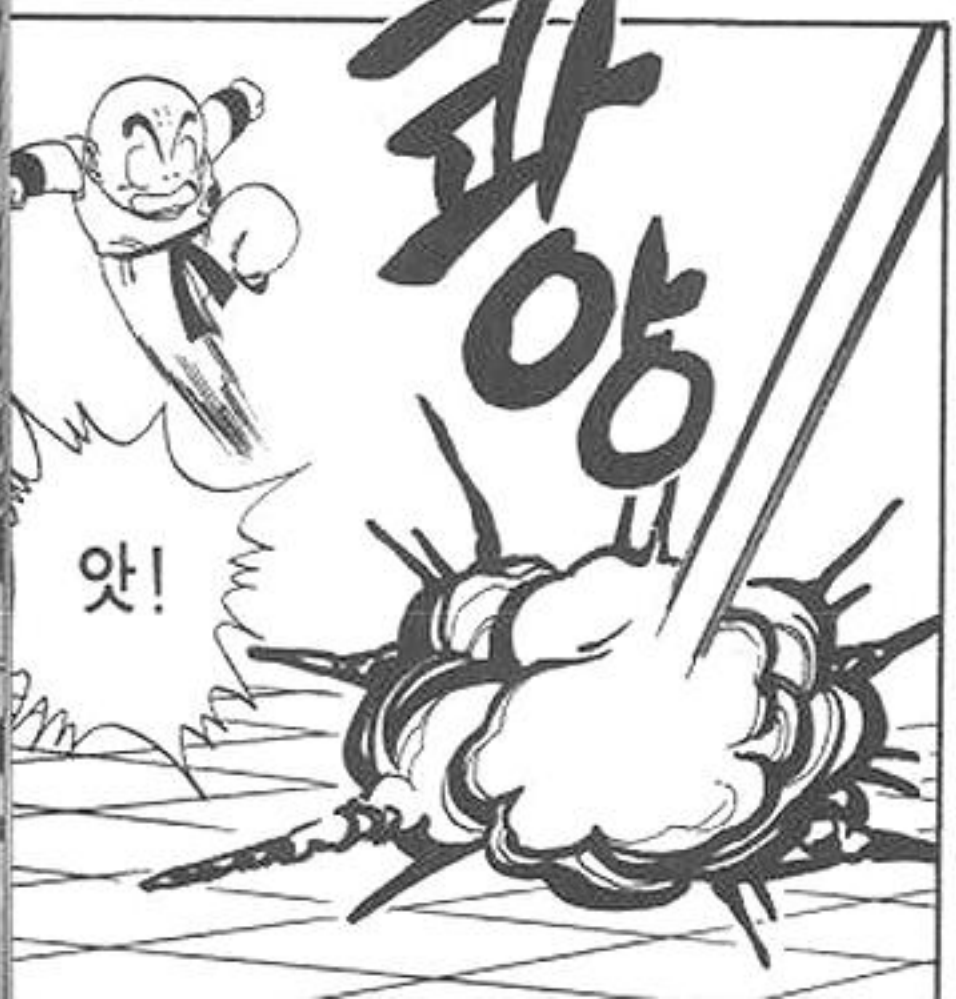
삐삐삐삐…

팟


돈돈파


엇!!


콰앙


앗!
콰앙

저, 저건 뭐야!?

무슨 기술이지?

파 파 파

타오파이 파이란 놈이랑 같은 기술이네!

도동파 라고…!?

우!


왜?
탁


너, 지금
누구하고 같은
기술이랬지?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뻥
아니야!


해치웠다고!?
뻥치지 마!
내가 처치한
타오파이파이란
살인 청부업자와 같은
기술이라고 했다!


타이


으득


타오파이
파이 님이
설마….


이상한
놈이야!
쟤는
왜 저래?

과…, 굉장한데…! 그 세계 최고의 살인 청부업자라는 타오파이파이를….

내가 정말 해치웠어. 힘들긴 했지만 아주 강한 놈이었어!

어라…! 할아버지도 안 믿어?

너, 정말 타오파이파이를 해치웠어?

학도사의 동생이야…!

타오파이 파이는….

으악!

퍼엉

동생이라면 형제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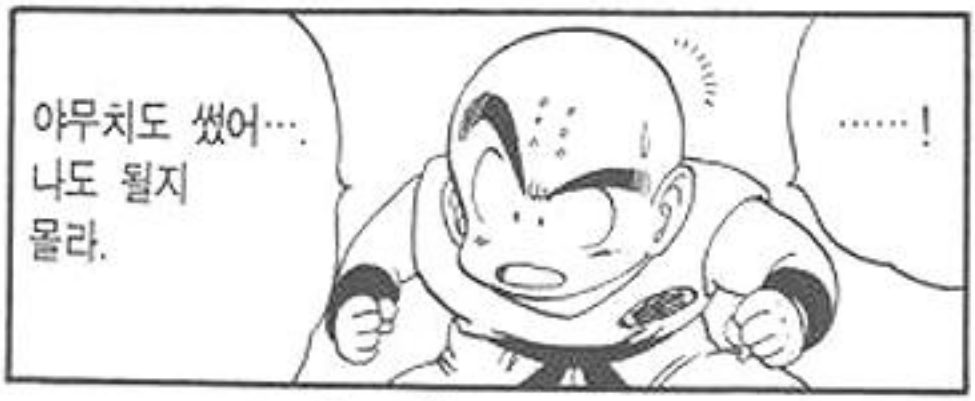
엥!?


키키키!
퍽퍽
내가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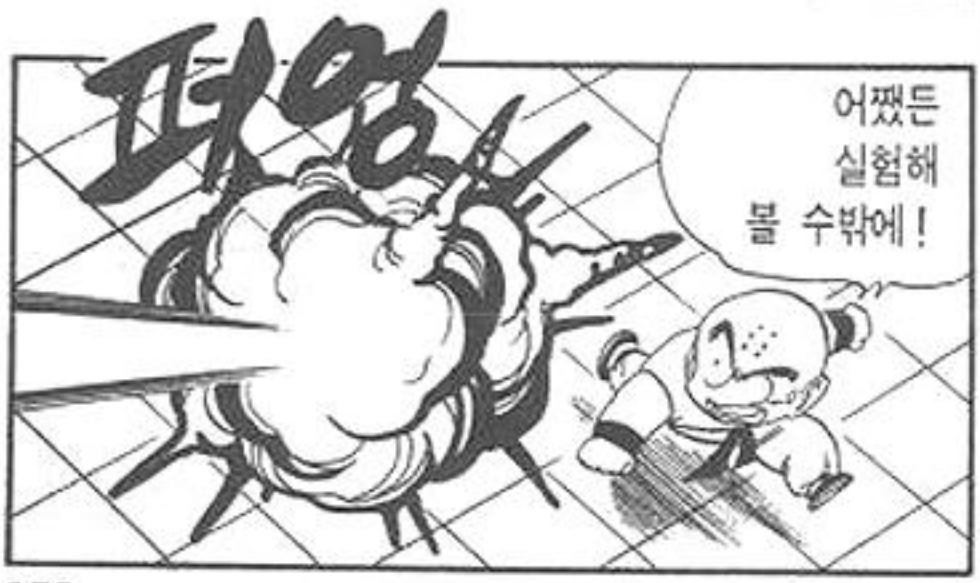

꼼짝도 못하겠네!
제길!


뭔 얘기니? 지금 한창 재미있는데.
드릴 말씀이…!


응?
학도사님!


야무치도 썼어…. 나도 될지 몰라.
……!


나도 에네르기 파를 쓸 수 있다면…!!
에잇!!


퍼엉
어쨌든 실험해 볼 수밖에!

퐁

에네르기… 팟!

자….

삭

잠깐 연습해 볼까….

내 동생 타오파이파이 녀석이 무천도사의 제자 한 명한테 당했다고…!?

아니…, 뭐야?

으…! 이 자식…!

3년이나 모습을 볼 수 없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됐다!

나올 것 같아!

당연하지! 아님 당할 녀석이 아니잖아!

물론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오즈! 장난 그만 치고 처치해 버려!

최대 출력의 도동파다!

엥!? 내가 저 사람 동생을 죽여서 그래!?

이런! 녀석들이 무천도사의 제자인 너희를 시합에서 죽이려 하나보다.

네….

에….

르….

기…!

도동….

크리링….

저, 저 녀석 설마…!

무리야…! 벼락치기로 배운 에네르기 파로는 도동파를 도저히 당해 낼 수 없어!

에네르기 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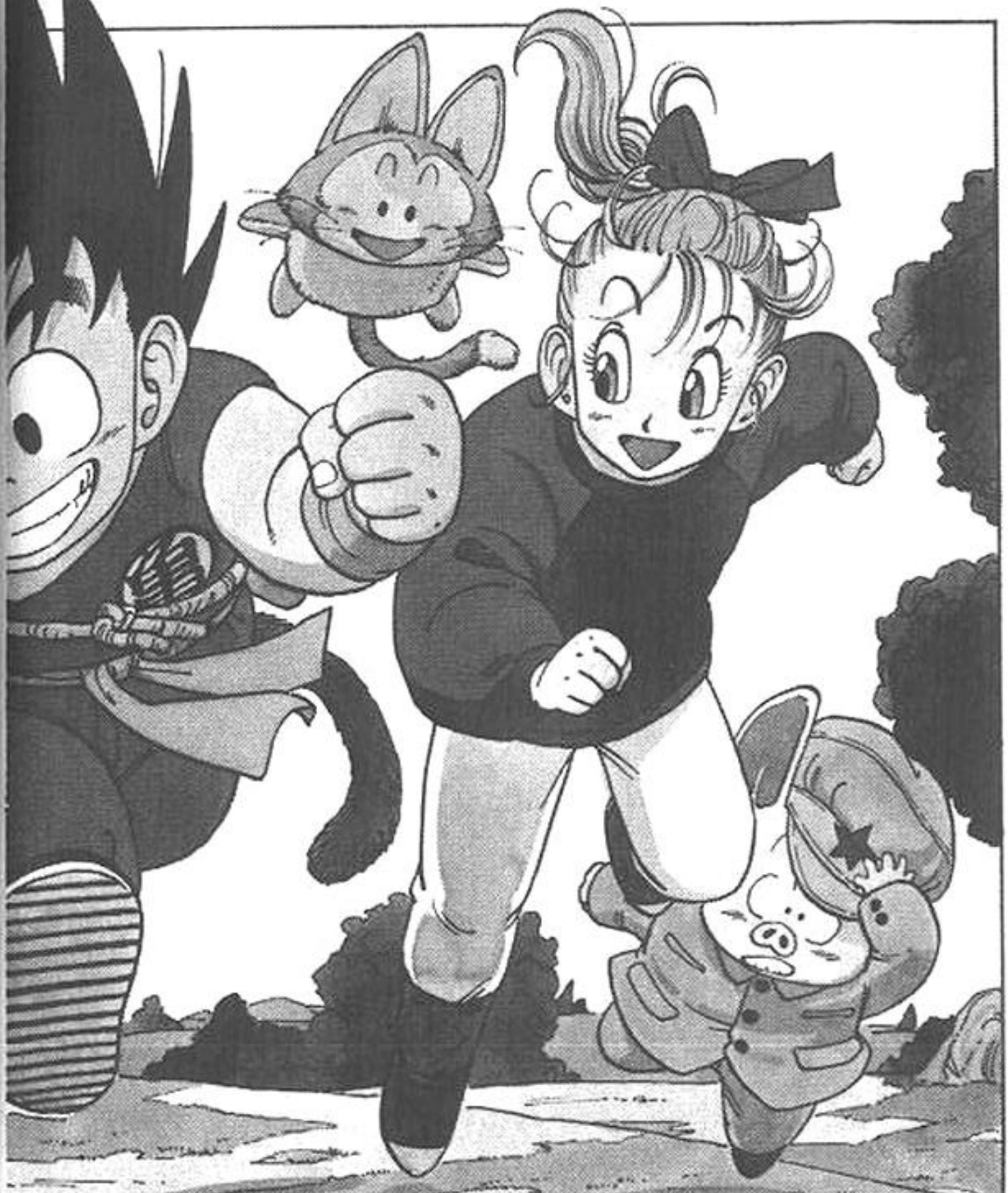
자, 이번 권에 수록된 각 이야기의 표지를 소년 점프에 연재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두 페이지 짜리로 시작했습니다요!!)

BALL

드래곤 볼

제110화 피라후의 대작전!!

鳥山明 BIRD STUDIO



표지 페이지 대특집 IX

DRAGON



연재 2주년 기념!!

DRAGON BALL

제114화 예선 서바이벌 1탄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16화 조작된 대전표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17화 야무치의 에네르기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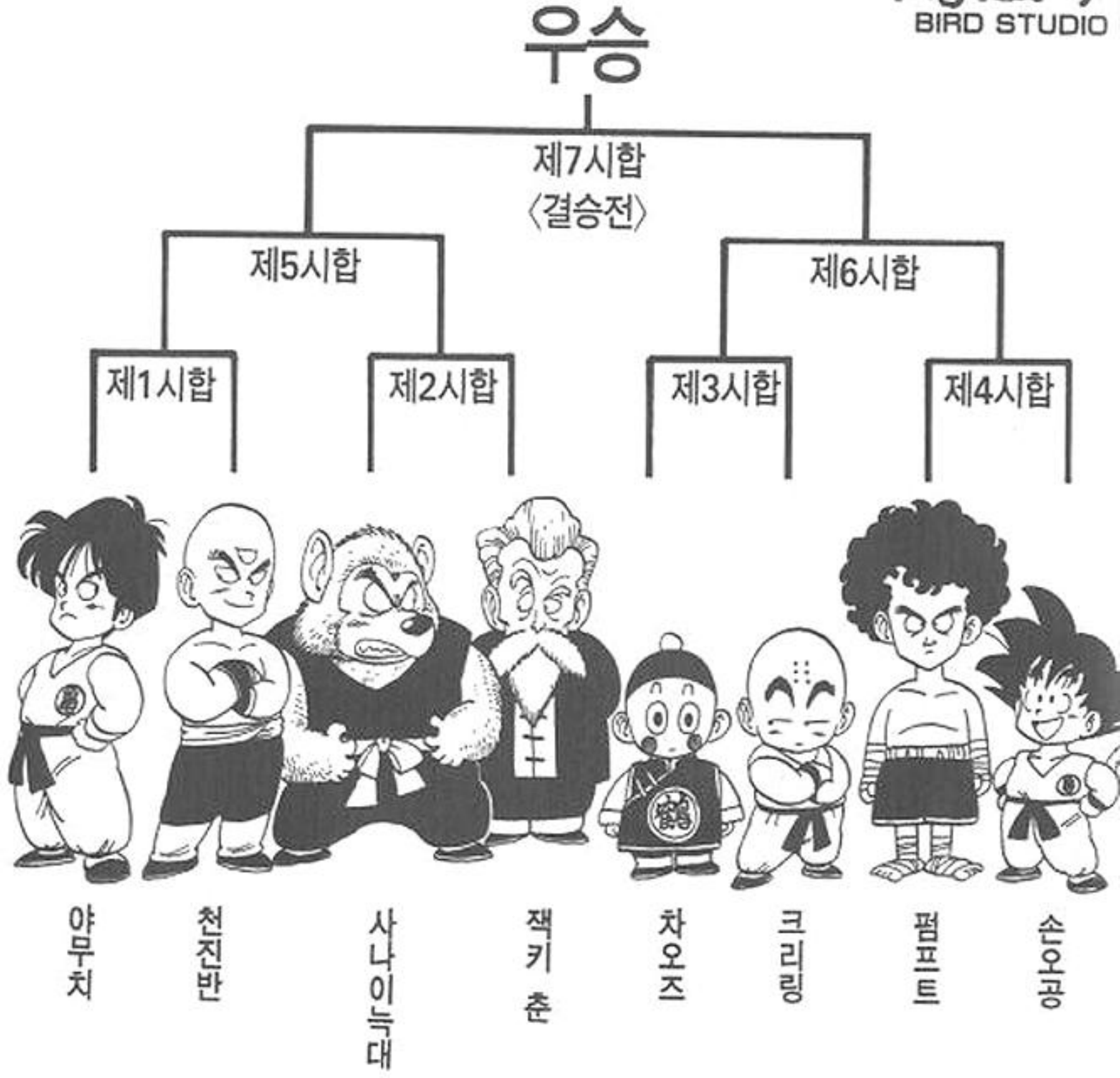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18화 야무치의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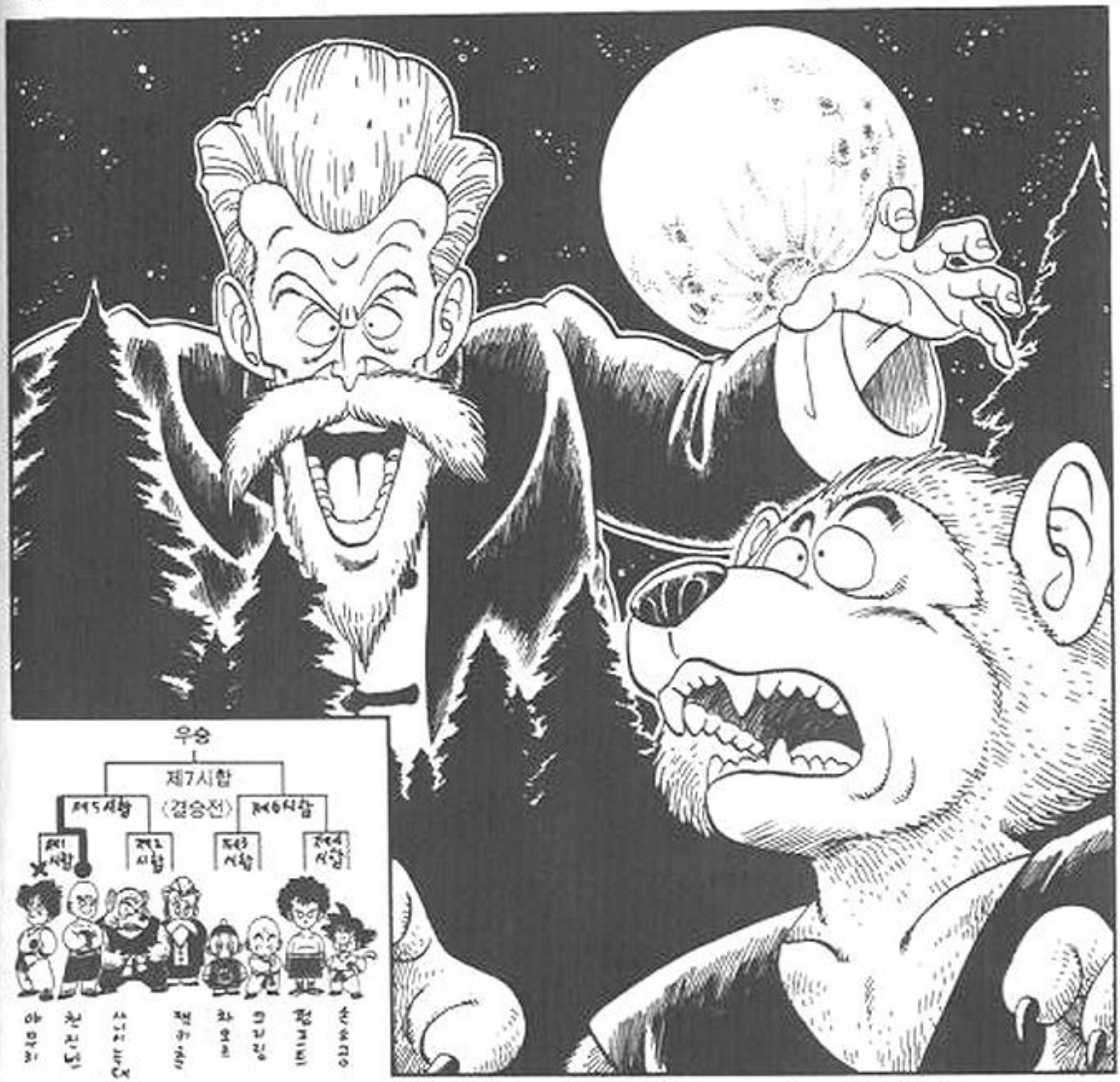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19화 보름달의 원한

鳥山明 BIRD STUDIO



제122화 천하제일 무술대회 제2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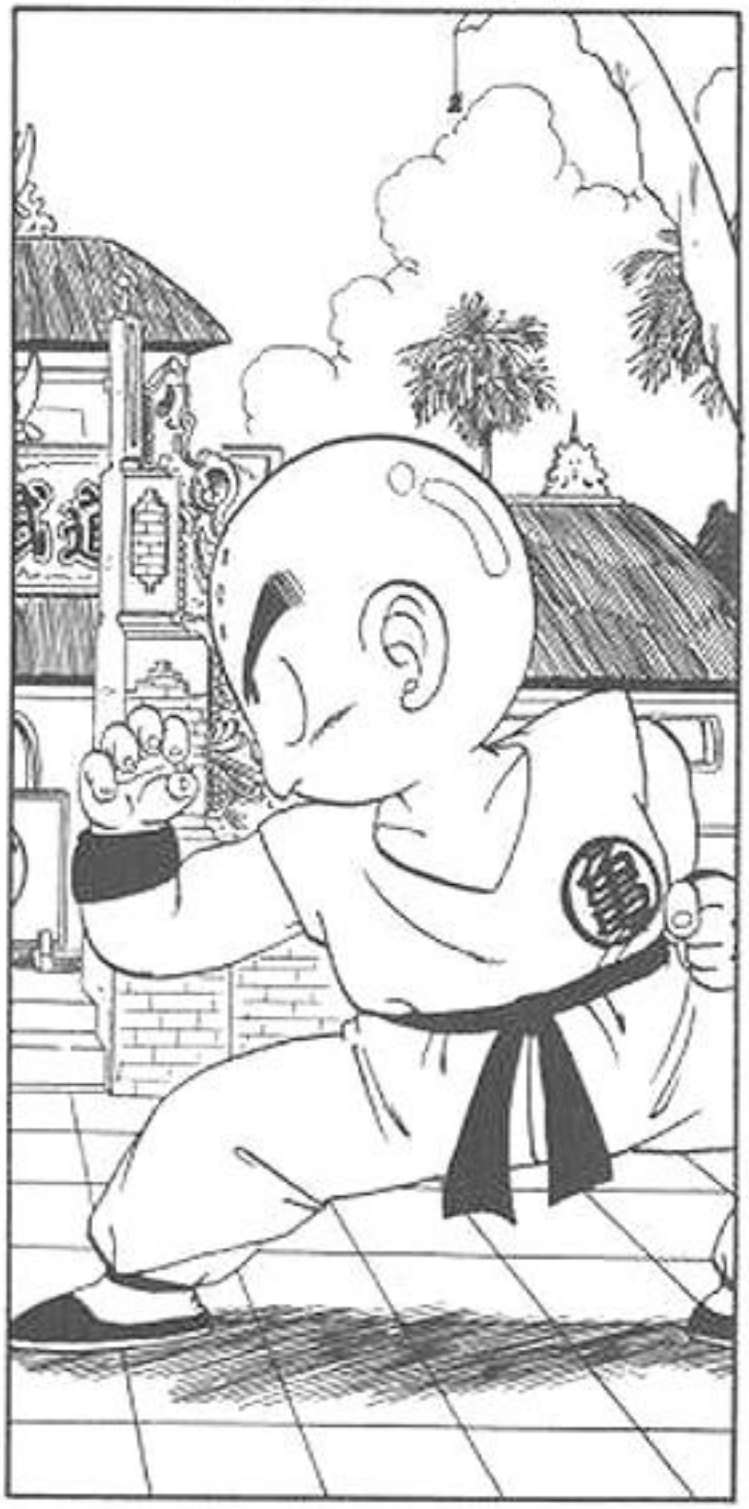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제120화 뜻밖의 도동파

鳥山明 BIRD STUDIO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제3시합





확도사의 제자 **차오즈 VS 크리링** 거북신선의 제자

IQ JUMP COMICS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